

KEJI 시상 자료집

제 16 회

경제정의기업賞

일 시 : 2006. 12. 19(화) 오전 10시30분~12시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 최 :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 후 원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목 차

I 經濟正義 企業賞

1. 시상식순
2. 개 회 사 : 정재영 이사장

II 第16回 經濟正義企業賞 紹介

- ◇ 제정 취지
- ◇ 수상 기업 선정 기준
- ◇ 수상 기업 선정 원칙
- ◇ 경제정의기업상의 의미와 내력
- ◇ 16회 경제정의지수
- ◇ 정량평가 지침
- ◇ 정성평가 지침 및 평가자료 원천, 기타
- ◇ 16회 경제정의기업상 평가절차

III 第16回 企業의 社會的 成果評價 結果

1. 정량평가 200개사 점수
2. 수상기업 발표
4. 수상기업 선정배경
5. 제16회 경제정의기업상 평가결과 해석
6. 제16회 수상 기업 프로필

IV 主催機關 紹介

- 경제정의연구소 소개

<부록>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지수와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모형들의 소개 및 분석
- 경제정의기업상 역대 수상기업 목록

I. 經濟正義 企業賞

1. 시상식 순

♣ 시상식 10:30-12:00

*진행 : 임효창(기업평가위원/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 ◆ 개회 : 진행자
- ◆ 개회사 : 정재영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부총장)
- ◆ 인사말 : 권영준 경제정의연구소 소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 ◆ 격려사 :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상지대 총장)
- ◆ 축사 :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 축사 : 이영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 ◆ 주요참석자 및 평가위원소개 : 진행자
- ◆ 경과보고 및 수상기업 발표 : 곽수근 기업평가위원장(서울대 경영학과)
- ◆ 시상 및 수상소감/수상기업 프리젠테이션
- ◆ 공지사항 및 폐회
- ◆ 기념촬영

개 회 사



정재영 이사장
성균관대 부총장

병술년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바쁜 시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정의연구소는 이 땅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정의로운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신념아래 경제정의기업상을 제정 및 시상해 온지도 16년이 흘렀습니다. 경제정의기업상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 환원에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사회가 더욱 건전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업들이 보다 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체제는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이 보다 앞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발 빠른 대응을 하여야만 가능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은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기업이 많이 존재 할수록 우리 사회는 후생수준의 증가는 물론,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과 SR(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OECE 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ILO 3자간 선언 등의 트렌드 속에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ISO 국제표준(ISO26000)이 제정되었으며, 한국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한 SR 표준화 포럼이 발족되어 2008년 한국형 ISO26000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는 경제정의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경제정의지수는 한 분야가 아닌 기업 활동의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소비자보호만족, 환경보호만족, 종업원만족, 경제발전기여도라는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평가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타 단체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평가 지수들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경제정의 연구소의 상을 받으신 기업들은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이 상을 받게 된 것을 자랑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여 오늘 수상 기업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기업평가위원들께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개발 작업과 수없이 많은 토론과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려운 선정과정을 통과하여 선발된 기업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드리기 위하여 마련 한 자리입니다. 기업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오실 수 있게 된 것은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평가위원들 및 사무국 연구원들 등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하신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올해도 잊지 않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영탁 이사장님과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가작업을 주도해 주신 광수근 기업평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방대한 자료의 분석과 사무적인 일을 도맡아 밤늦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경제정의연구소 박완기 사무국장 및 서희경 부장, 권오인·유현석 간사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19일

Ⅱ. 第16回 經濟正義企業賞 紹介

제/정/취/지/문

한국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像을 정립하고자 이 賞을 제정한다.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정의로운 기업이 많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평가받고 뿌리를 내린 국민적 기업이 세계적으로도 평가받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혹은 정의로운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공헌도가 높아야 한다. 사회적 공헌도란 기업활동이 건전, 공정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종업원기여, 환경오염 예방과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복지부문의 총체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에 노력을 경주하는 기업을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이라 본다.

이 賞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국민적 기업이 될 수 있는가를 형상화하려는 노력의 하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 사회 일반의 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을 바로 잡고, 이제는 당당한 세계시민기업으로서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 그리고 이들로 구성되는 사회 공동체는 물론 인류전체의 무한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수/상/기/업 선/정/기/준

당 연구소에서는 '91년도부터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KEJI 경제정의지수모형」을 기초로 다음의 10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경제정의企業賞] 수상기업을 선정합니다.

기업가가 건전한 기업관, 사회관과 국가관을 갖고,

1. 기업주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고 경영을 전문화하는 기업
2. 공정거래질서와 기업관련 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기업
3.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며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기업
4. 창의와 기업가정신으로 기술혁신을 강화하는 기업
5. 종업원 능력개발, 복지증진과 산재를 방지하며 노사화합을 이루는 기업
6. 산업공해 예방과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기업
7. 재테크와 불건전지출을 지양하며 본업에 충실하는 기업
8. 효율적 고용증대와 국제화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9. 기업정보를 성실히 공개하며 고객만족에 힘쓰는 기업
10. 사회복지·문화·지역사회지원 등 사회공동체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

수상기업 선정 원칙

1. 경제정의기업상 大賞 수상기업은 향후 4년간 대상 및 업종별 수상에서 제외한다.
2. 업종별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은 2년간 업종별 수상에서 제외한다.
(단 大賞은 가능)
3. WORST 기업은 당분간 발표하지 않는다.

경제정의기업상의 의미와 내력

- “경제정의기업상” 명칭에 대한 이해 : 경제정의는 곧 분배정의이기에 이 의미는 기업이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윤리경영으로 사회 환원을 통하여 보다 성숙된 시민기업이 되어야 함을 의미함.
- 미국의 「경제최우선 협의회(Council Economic Priorities)」의 CEP Index와 일본의 아사히 재단의 지수 및 유럽 등지의 윤리지수의 평가들이 우리의 대비되는 평가 들임.
- 경제정의기업상 및 경제정의지수(KEJI)의 우월성

1) 역사성

- 1991년 12월 제1회 경제정의기업상을 시작으로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
- 경제정의연구소에서 개발한 경제정의지수는 국내 최초의 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모델.

2) 시민에 입장에서 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 타 단체와는 다르게 시민단체에서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한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둠.
- 수상한 기업들은 시민단체의 평가모델에 의해 수상을 했다는 점에서 대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

3) 좋은 취지의 평가 및 시상

-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대가성 없는 좋은 취지에서의 평가 및 시상을 진행한다는 것이 큰 의미.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에 의한 한국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모형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KEJI)** (우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Tel.(02)766-5625(직통), Fax.(02)741-8565

7대 평가항목 49개 평가지표, 4개 고려지표

I. 건전성(7개 지표, 25점)

항목	평가항목	지표	세부지표	배 점			기타
				정량평가	자료원	정성평가	
건 전 성 (25)	주주구성 의 건 전 성 (12)	내부지분율		4	사업보고서		
		전문경영인정도		3	사업보고서		
		경영세습 상태	소유권의 승계		설 문	3	
			소유경영 정도		설 문	1	
			소유권과 책임경영		설 문	1	
	투자지출의 건 전 성 (3)	소비성 지출		3	한신평 및 사업보고서		(접대기밀비/인건비)× 100-업종별 평균비율
	자본조달의 건 전 성 (10)	위험성		5	사업보고서		* (장·단기차입금총계 /자기자본)×100
		관계사출자		3			
		관계사지급보증		2			
	*고려지표	탈세 등	분식회계, 탈세,세금 추징	[-3]	언론,국세청 보도자료		
합계				20		5	

II. 공정성(5개 지표,15점)

항목	평가 항목	지표	세부지표	배 점			기타	
				정량평가	자료원	정성평가		
공정성 (15)	공정성 (5)	공정 거래	위반건수	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심결자료	
			과중한 위반행위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2회 이상	2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력집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증권거래소	2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여부 *(준)공기업포함여부 (정부기관의지분이 5% 이상이거나,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감사, 예산 계획의 대상이 되는 기업)	
	투명성 (8)	불성실공시 및 사업보고서 적정성	불성실공시	2	사업보고서			
			적정성	2			*감사의견, 정정, 전기오류수정사항	
		사외이사 활동	사외이사 비율	2				
			이사회 참여	2				
	협력관계 (2)	협력업체 관계	자금, 기술, 경영지원		설문	1		
			납품대금지불관행 개선		설문	1		
	*고려 지표		①언론사 지분보유 ②금융기관 지분보유 ③중소기업 고유업종침해 위반 건수별 1점씩 최대 2점까지 감점			[-2]		
	합계				11		4	

III. 사회봉사기여도(5개 지표, 10점)

항목	평가항목	지표	세부지표	배 점			기타	
				정량평가	자료원	정성평가		
사회 봉사 기여 도 (10)	소외계층 보호 (6)	장애인 고용비율		2	장애인고용촉 진공단		*(실제고용수/의무고용 수)×100	
			여성 채용비율	2				
		장애인 및 여성 고용지원			설 문	2	*장애인 및 여성고용 촉 진을 위한 채용기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작 업장 및 사무실시설 개선 시행여부	
	사회공헌 (4)	기부금			3	사업보고서, 한국신용평가		
		사회 복지 지원	종업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설 문	0.5	
			시민·사회 단체 지원			설 문	0.5	
합 계				7		3		

IV. 소비자보호만족도(5개 지표, 10점)

항목	평가항목	지표	세부지표	배 점			기타		
				정량평가	자료원	정성평가			
소비자 보호 만족도 (10)	소 비 자 권리보호 (5)	공산품 사후봉사 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고객만족 신규투자비용	설문	1
	품 질 (3)	품질관련 인증	3	한국인정원, BSI인증원		*ISO9000, QS9000, TL9000 인증 *ISO17799(BS7799) 인증			
	광 고 (2)	광고비 과다지출 개선	2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광고선진비+판촉비)증 가율/매출액증가율			
합 계			7		3				

V. 환경보호만족도(6개 지표, 15점)

항목	평가 항목	지표	세부 지표	배 점			기타
				정량평가	자료원	정성평가	
환경 보호 만족 도 (15점)	환경 개선 노력 (7)	환경회계공시		2	감사보고서		
		에너지효율		2	에너지 관리공단		
		환경 투자	투자 실적		설 문	1	
			경영 방침			1	
	보호 운동			1			
	환경 친화성 (3)	환경관련 인증 및 수상		3	환경부 외		*사업장폐기물감량화우수사업장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마크(환경마크협회) *ISO14000(한국인정원) *환경친화성지정기업(환경부) *환경대상(산자부 및 환경부) *환경보고서 *UN Global compact 가입 *기타 정부 및 유관기관 환경관 련수상 및 인증
	위반 및 오염실 적 (5)	수질, 대기분진, 특정유해물질 오염실태		3	환경부		
환경위반실적 자료심사				2			
합 계			10		5		

VI. 종업원만족도(11개 지표, 15점)

항목	평가항목	지표	세부지표	배 점			기타	
				정량평가	자료원	정성평가		
종업원 만족도 (15)	작업장 보건 및 안전인증 (2)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련 인증 및 수상		2	한국인정원, 한국산업안전 공단		*K-OHSMS인증 *산업안전보건대회 정부포상 *KOSHA18001인증 *S마크 인증	
	인적자원 투자 (4)	1인당 교육훈련비		2	한신평, 사업보고서,감 사보고서			
		교육훈련비 증가율		2				
	임금 및 복지후생 (4)	임금보상수준		2	한신평,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복지후생		2				
	노사관계 (2)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설 문	1		
		노사분규 발생여부				0.5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0.5		
	남녀고용 평등 (3)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노력			설 문	1		
		대리직급 이상인 여직원 수				1		
		여성의 최고직급				1		
	*고려 지표	노사협력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1]	
		종업원 지주제도	우리사주 주식보유		[1]			
	합 계				10		5	

VII. 경제발전기여도(10개 지표, 10점)

항목	평가항목	지표	세부지표	배 점			정성 평가	기타
				정 량 평 가		자료원		
				제조업	비제조및서비스			
경제 발전 기여 도 (10)	연구개발 노력 (3)	연구개발지출	2	3	사업보고서	해당 없음	*특허 및 장영 실상 건수	
		특허 및 장영실상	1	해당 없음	특허청,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			
	경영성과 및 경제기여 (7)	수익성	1	1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한신평, 증권거래소		해당 없음	
		성장성	1	1				
		설비투자	1	해당 없음				
		고용인력 증가율	해당 없음	1				
		조세납부	1	2				
		배당성향	1	1				
		노동생산성증가율	1	1				
	수출기여도	1	해당 없음	*수출비중+ 수출증가율				
합 계			10	10				

정량평가 지침

□ 매년 다음과 같은 평점화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평가과정상의 공정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정의기업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1. KEJI 평가의 기본절차

- ① 주어진 산식에 따라 해당지표의 실제값 계산
- ② 지표별 실제값을 평점화 지침에 따라 100점 만점 평점으로 전환
- ③ 지표별 평점 가중비율에 따라 최종 득점으로 계산

2. 지표별 평점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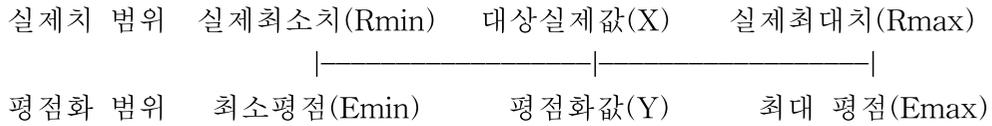
지표별 평점화의 방식으로 표준화방식과 등급화방식을 채택한다. 각각의 내용 및 세부 평가지침은 아래와 같다.

1) 표준화 방식

특징	- 지표의 실제값 중 기준 이상을 넘는 이상치를 제외한 정상 범위내의 실제값의 분포특성을 그대로 이용해 Min(0~25), Max(85~100)의 평점으로 전환하는 방식
적용 항목	- 지표의 특성상 반드시 분포특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지표 - Missing Values가 적으며, 동시에 통계적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특성을 지니는 지표
적용 예	- 건진성 항목 중의 내부지분율 등 - 경제발전기여도 항목 중의 수익성, 연구개발지출, 설비투자 등

① 보간법을 적용해 실제치를 평점값으로 전환

(계산논리)



$$\text{평점값 } Y = \text{최소평점} + \frac{(\text{최대평점} - \text{최소평점}) \times [\text{실제값}(X) - \text{실제최소치}]}{(\text{실제최대치} - \text{실제최소치})}$$

② 표준화방식의 적용 사례 : 복지후생

계산식 기초값	최대평점	실제최대값	실제최소값
		100	10
최소평점		10이상인 경우는 모두 10으로 recode	1.0이하인 경우는 모두 1로 recode
	25		

$$\text{평점값 } Y = 25 + \frac{(100 - 25) \times [\text{실제값}(X) - 1]}{(10 - 1)}$$

2) 등급화 방식

(1) 등급화방식의 의의

특징	- 지표의 실제값을 분포특성 및 지표특수성을 고려해 A, B, C, D, E의 5단계 또는 4단계나 3단계 등 등급으로 전환하는 방식
적용 항목	- 특성상 분포특성을 그대로 이용하기 힘든 지표 - Missing Values가 많거나, 분포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지표 - 사회적 규범상 등급별 평가가 유용하거나 필요한 지표
적용 예	- 건전성 항목 중의 전문경영인 비율 - 공정성 항목 중의 사업보고서의 적정성 - 환경보호 항목 중의 에너지효율

(2) 등급화방식의 적용 절차

- ① 표준화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지표의 특수성으로 인해 등급화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선정
- ② 분포특성 및 지표특성을 고려해 정률 등급, 정량 등급, 서술 등급의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정하고, 해당지표의 등급단계(2~5단계)를 설정

[참조] 5단계 등급화방법의 예시

등급	정률법 예	정량법 예	서술법 예
A	상위 10%미만	0 건	감사의견 적정
B	상위 10-30%	1건	감사의견 한정
C	30-70%	2건 - 3건	적정후 수정제출
D	하위 10-30%	4건 - 6건	감사의견 부적정
E	하위 10%미만	7건 이상	부적정 + 금감원 지적
적용 예시	소비성 지출 보유부동산	특허 및 장영실상 경제력집중	전문경영인 정도 사업보고서 적정성 약관의 정당성

③ 평점화의 범위 설정

지표의 성격을 고려해 최소치와 최대치에 부여할 최소/최대 평점 결정

정성평가 지침

1. 정량평가결과 전체상위10%, 업종상위20% 기업을 정성평가설문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다.
2. 설문항목 평가 및 정성평가기준[최근 3개년(2003~2005년)간 언론보도자료, 정부기관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을 적용하였다.
3. 위의 방법은 설문지가 회수된 기업을 중심으로 정리·취합하여 이뤄졌고, 기업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4. 최종심사에서 최근3개년(2003~2005년) 불법정치자금 제공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요임원 및 기업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쳐 [원칙과 현실]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평가자료 원천 및 기타

1. 평가자료원천 :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노동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증권거래소,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신용평가, 한국인정원, 환경마크협회, 환경부, 특허청, BSI인증원 등
2. 당년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보편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누적자료도 참고로 본다.
3. 고려사항들은 자료원천을 사용하는데 있어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 또는 자료부족일 경우에 우선 적용한다.

16회 경제정의기업상 평가절차

- 2006년 6월부터 기업평가위원회의 11인 내외의 평가위원들과 사무국 연구원들이 6개월 간 평가 한 것임.

1. 평가대상기업선정 : 2005년 거래소상장기업(금융업 및 뮤추얼펀드 및 REITs 제외)

2. 평가대상기업 선정원칙에 의한 정량평가 대상 기업 선정

* 평가대상기업 선정원칙(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함)

- 3개년 순이익 적자회사/자본잠식업체/이자보상배율 1.0미만 기업/합병회사/결산기 변경사/신규상장사관리 및 자료 미제출사

▶총311개사 선정

- 식약/섬유/종이업 : 72개사
- 금속/비금속/화학업 : 84개사
- 전기전자/기계업 : 77개사
- 비제조/서비스업 : 78개사

3. 경제정의지수(7대 평가항목, 49개 평가지표, 4개 고려지표)에 의한 정량평가

4. 16회 경제정의지수에 의한 정량평가결과 전체상위10%, 업종상위20% 기업을 정성평가설문 대상기업으로 선정 : 총 64개 사

- 식약/섬유/종이업 : 15개사
- 금속/비금속/화학업 : 17개사
- 전기전자/기계업 : 16개사
- 비제조/서비스업 : 16개사

5. 정성평가 및 최종심사결과 : 총 4개사 선정

Ⅲ. 第16回 企業の 社会的 成果評價 結果

1. 정량평가 200개사 점수

* 가나다 순

기업명	16회 업종분류	건전성 (20점)	공정성 (11점)	사회봉사 기여도 (7)	소비자보호 만족도 (7)	환경보호 만족도 (10)	종업원 만족도 (10)	경제발전 기여도 (10)	정량평가 (75)
가온전선	전기전자/기계업	13.41	8.85	3.15	3.45	6.15	5.35	4.12	44.48
건설화학공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6.28	9.15	4.10	3.37	7.30	5.30	4.40	49.91
경남에너지	비제조/서비스업	18.01	8.25	4.76	3.43	4.80	6.91	4.38	50.54
경농	금속/비금속/화학업	13.49	6.95	4.94	3.38	6.40	7.03	6.31	48.49
경동나비엔	전기전자/기계업	16.23	6.95	3.05	4.25	6.60	6.92	5.05	49.04
경동도시가스	비제조/서비스업	15.83	9.15	2.16	3.44	4.80	6.04	4.06	45.49
계룡건설산업	비제조/서비스업	15.10	7.35	4.02	3.41	6.40	6.37	4.61	47.27
계양전기	전기전자/기계업	16.19	6.75	3.26	3.06	5.50	7.63	5.61	48.00
고려개발	비제조/서비스업	16.58	9.15	2.90	3.45	6.40	6.83	5.33	50.64
광동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5.87	6.95	3.67	2.99	4.80	7.05	5.76	47.09
광주신세계	비제조/서비스업	16.65	8.55	2.65	3.09	4.80	5.56	4.76	46.06
국도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6.40	8.75	2.79	3.03	5.95	6.23	4.80	47.96
근화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5.32	7.25	5.26	3.05	4.80	7.49	6.19	49.36
금강공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3.68	8.85	4.21	3.78	4.80	4.82	4.44	44.58
금비	금속/비금속/화학업	13.81	8.85	4.63	2.29	6.40	5.99	4.65	46.62
금호석유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4.11	8.55	4.97	3.47	7.30	4.59	6.23	49.22
금호전기	전기전자/기계업	15.93	8.85	2.02	3.42	6.15	5.48	5.41	47.28
남해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3.07	9.05	4.44	3.51	7.75	8.12	4.19	50.13
넥센	금속/비금속/화학업	15.01	7.35	3.32	3.73	6.40	5.50	4.17	45.49
넥센타이어	금속/비금속/화학업	13.26	8.85	4.56	2.97	6.40	3.44	5.40	44.87
대구백화점	비제조/서비스업	16.57	7.65	2.92	3.08	4.80	7.30	3.68	46.00
대덕전자	전기전자/기계업	15.16	8.85	2.03	4.20	6.60	2.64	5.47	44.95
대덕GDS	전기전자/기계업	16.79	8.35	2.01	3.71	5.70	4.17	4.54	45.27
대동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6.32	7.65	3.18	2.99	5.50	6.56	5.34	47.54
대림산업	비제조/서비스업	16.62	9.15	2.63	3.48	7.05	5.81	4.94	49.68
대림요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3.63	8.85	4.46	3.32	6.60	5.12	4.79	46.77
대우건설	비제조/서비스업	13.77	8.75	3.37	3.38	5.50	7.05	4.78	46.61
대웅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5.83	7.65	4.18	3.00	4.80	7.41	5.98	48.85
대원강업	전기전자/기계업	15.18	8.45	3.29	3.00	5.50	5.93	4.59	45.94
대원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6.09	9.15	3.95	3.00	4.80	7.62	5.78	50.38
대원화성	금속/비금속/화학업	14.15	8.65	2.38	3.39	6.60	6.28	5.16	46.60
대창공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2.84	7.65	4.60	4.20	6.85	5.85	4.50	46.49
대한도시가스	비제조/서비스업	15.84	7.35	3.41	3.46	4.80	5.51	4.22	44.59
대한제당	식약/섬유/종이업	12.38	8.25	5.97	3.46	5.25	6.65	4.51	46.48
대한항공	비제조/서비스업	14.10	6.85	3.29	2.98	7.30	6.13	3.93	44.58
대현	식약/섬유/종이업	16.38	9.15	3.77	2.99	4.80	4.53	3.30	44.92
동남합성	금속/비금속/화학업	16.87	8.25	1.75	3.04	4.80	4.69	5.51	44.92
동방아그로	금속/비금속/화학업	15.85	7.95	1.88	2.99	5.50	6.05	5.70	45.91
동성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3.88	9.15	3.44	3.16	4.80	6.42	4.75	45.60
동신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3.02	6.95	4.20	3.01	4.80	8.00	5.70	45.68
동아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5.42	7.65	4.54	2.80	4.80	6.23	5.89	47.33
동양기전	전기전자/기계업	16.10	7.55	2.62	3.46	4.80	5.14	4.77	44.44
동양물산기업	전기전자/기계업	15.17	7.75	6.40	3.41	4.80	6.50	4.96	48.99
동양제철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4.78	6.45	4.22	2.70	7.30	6.34	5.57	47.36
동양철관	금속/비금속/화학업	16.24	8.85	2.95	3.44	4.80	5.54	4.11	45.93
동원F&B	식약/섬유/종이업	16.35	8.75	2.57	3.38	6.40	7.37	4.17	48.98
동해전장	전기전자/기계업	14.04	8.85	1.89	2.95	4.80	6.44	5.32	44.29
동화약품공업	식약/섬유/종이업	16.70	8.65	2.53	2.97	4.80	7.76	4.99	48.40
두산인프라코어	전기전자/기계업	12.79	6.25	4.59	2.70	5.70	8.15	6.19	46.38
두산중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2.22	8.65	4.10	3.43	7.30	6.72	6.35	48.78

기업명	16회 업종분류	건전성 (20점)	공정성 (11점)	사회봉사 기여도 (7)	소비자보호 만족도 (7)	환경보호 만족도 (10)	종업원 만족도 (10)	경제발전 기여도 (10)	정량평가 (75)
디피씨	전기전자/기계업	15.14	8.25	1.75	3.85	4.80	6.72	4.40	44.92
롯데제과	식약/섬유/종이업	15.28	8.35	3.08	3.48	7.30	6.56	4.71	48.77
롯데칠성음료	식약/섬유/종이업	16.53	9.15	4.72	3.48	6.60	6.64	4.34	51.46
미래산업	전기전자/기계업	14.25	8.95	2.98	3.01	4.80	6.09	5.79	45.86
백광산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5.20	7.55	4.60	3.48	6.40	5.76	4.24	47.23
범양건영	비제조/서비스업	16.81	8.25	2.73	3.44	5.50	4.99	5.01	46.74
벽산건설	비제조/서비스업	14.36	6.05	4.95	2.70	5.70	5.75	5.03	44.53
보락	금속/비금속/화학업	15.87	8.25	1.76	2.70	6.40	4.78	5.37	45.12
보령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4.75	7.35	5.47	3.00	4.80	7.68	5.54	48.59
보해양조	식약/섬유/종이업	11.43	8.35	5.71	2.97	4.80	7.12	4.97	45.35
부광약품	식약/섬유/종이업	15.26	6.25	4.42	3.00	4.80	7.48	6.01	47.23
부산산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3.72	9.15	3.41	3.62	5.70	8.20	3.49	47.28
빙그레	식약/섬유/종이업	17.24	8.05	3.97	3.53	5.70	5.24	5.41	49.15
삼립식품	식약/섬유/종이업	15.84	7.95	3.44	3.47	5.70	6.13	4.20	46.73
삼부토건	비제조/서비스업	15.83	7.65	3.84	3.32	5.70	3.63	4.96	44.92
삼성물산	비제조/서비스업	14.42	8.35	5.27	3.40	6.40	4.70	3.16	45.70
삼성엔지니어링	비제조/서비스업	16.12	8.85	2.50	3.21	6.40	7.99	4.81	49.88
삼성전자	전기전자/기계업	17.30	7.75	4.83	3.80	8.50	3.53	6.77	52.49
삼성정밀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5.04	9.15	4.98	3.12	7.30	5.75	5.42	50.76
삼성테크윈	전기전자/기계업	15.70	8.95	5.21	3.00	6.40	6.49	6.04	51.79
삼양사	식약/섬유/종이업	15.24	8.35	5.26	2.98	7.30	5.73	5.66	50.52
삼양제넥스	식약/섬유/종이업	15.03	9.15	4.83	3.53	5.70	4.61	5.63	48.48
삼양중기	전기전자/기계업	16.12	9.15	2.23	3.75	4.80	6.18	4.82	47.05
삼영전자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5.34	8.45	3.33	2.70	6.40	4.26	5.09	45.57
삼일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6.00	7.35	5.70	2.99	4.80	6.91	5.87	49.62
삼진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2.92	8.75	4.46	2.99	5.50	7.46	5.81	47.89
삼호	비제조/서비스업	15.77	8.85	2.42	3.43	5.70	5.50	4.33	46.01
삼화왕관	전기전자/기계업	14.13	7.15	5.20	2.25	5.70	6.33	5.02	45.79
삼화전기	전기전자/기계업	12.57	8.85	3.18	3.04	6.40	5.04	5.61	44.69
삼화콘덴서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2.14	9.15	2.38	3.70	5.70	7.81	4.76	45.65
삼화페인트공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4.80	6.95	2.51	3.59	6.40	6.38	4.46	45.09
삼환기업	비제조/서비스업	16.97	6.05	3.51	3.34	5.70	4.93	5.30	45.80
서원	금속/비금속/화학업	12.19	7.65	4.14	4.20	6.85	6.54	5.07	46.64
서흥캡셀	식약/섬유/종이업	11.96	8.85	2.92	3.00	6.40	6.03	5.23	44.39
선도전기	전기전자/기계업	15.17	8.25	2.07	3.45	5.70	5.15	4.84	44.63
선진	식약/섬유/종이업	13.10	8.45	6.45	3.18	4.80	6.35	4.15	46.48
성보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5.77	9.15	4.00	3.12	4.80	4.15	5.16	46.15
성지건설	비제조/서비스업	16.90	7.65	3.35	3.07	5.70	2.95	5.00	44.62
세방	비제조/서비스업	13.20	8.85	5.50	2.99	4.80	5.90	3.20	44.44
세방전지	전기전자/기계업	14.26	6.45	4.57	3.45	7.05	5.36	5.47	46.61
세아제강	금속/비금속/화학업	12.54	8.85	3.57	3.38	6.60	5.51	4.59	45.05
세종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4.54	7.15	3.32	3.01	4.80	6.09	6.41	45.32
신도리코	전기전자/기계업	16.36	7.35	2.23	3.92	7.00	4.88	4.79	46.54
신성이엔지	전기전자/기계업	15.19	7.35	5.15	3.49	6.40	6.77	5.35	49.70
신성통상	비제조/서비스업	14.18	8.85	3.68	3.29	4.80	8.13	3.57	46.50
신세계	비제조/서비스업	16.88	7.75	4.23	2.99	4.80	5.81	4.63	47.10
신세계건설	비제조/서비스업	17.33	8.85	2.23	3.49	5.70	5.55	4.79	47.95
신원	식약/섬유/종이업	14.07	9.65	4.26	2.88	4.80	7.01	4.78	47.44
씨너전자	전기전자/기계업	14.20	8.85	2.95	3.92	5.70	5.72	5.40	46.74
아세아시멘트	금속/비금속/화학업	15.27	8.45	5.11	2.70	5.25	6.76	4.76	48.30

기업명	16회 업종분류	건전성 (20점)	공정성 (11점)	사회봉사 기여도 (7)	소비자보호 만족도 (7)	환경보호 만족도 (10)	종업원 만족도 (10)	경제발전 기여도 (10)	정량평가 (75)
에스원	비제조/서비스업	17.24	8.85	2.75	3.46	4.80	6.05	6.44	49.59
에스지위카스	비제조/서비스업	16.90	8.85	1.75	3.10	4.80	7.10	2.88	45.38
영보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4.04	8.35	4.23	3.65	5.70	4.31	5.34	45.62
영원무역	비제조/서비스업	15.58	7.95	4.73	3.19	4.80	5.76	3.79	45.80
에스코	비제조/서비스업	15.81	9.15	2.30	3.00	4.80	5.92	3.32	44.30
오뚜기	식약/섬유/종이업	14.94	6.85	2.48	3.43	7.30	7.24	4.59	46.82
오리온	식약/섬유/종이업	15.16	8.85	3.67	2.96	5.70	7.06	5.07	48.46
우신시스템	전기전자/기계업	13.71	8.85	4.30	3.02	4.80	5.44	4.89	45.00
웅진씽크빅	비제조/서비스업	16.63	7.95	2.14	2.99	4.80	6.79	6.07	47.38
유니온	금속/비금속/화학업	13.69	8.85	3.08	3.51	5.70	5.32	4.90	45.04
유유	식약/섬유/종이업	15.92	7.35	2.64	2.99	5.50	6.57	6.45	47.43
유한양행	식약/섬유/종이업	15.69	9.15	4.39	2.99	5.70	5.51	6.14	49.58
울촌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4.02	8.85	3.18	3.18	5.25	5.20	5.23	44.92
인지컨트롤스	전기전자/기계업	14.44	7.95	4.38	2.91	4.80	5.81	5.84	46.13
일동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6.97	7.85	4.63	2.99	5.50	7.58	5.95	51.48
일성신약	식약/섬유/종이업	15.24	7.95	2.33	2.99	4.80	5.31	5.68	44.30
일양약품	식약/섬유/종이업	16.82	8.25	2.07	2.97	5.50	6.93	5.58	48.12
일진전기	전기전자/기계업	13.08	8.35	3.41	3.41	6.60	5.94	5.79	46.58
자화전자	전기전자/기계업	16.24	8.85	5.50	3.78	5.70	5.43	6.27	51.77
제일기획	비제조/서비스업	16.07	8.25	2.40	2.91	4.80	6.30	4.70	45.43
제일모직	식약/섬유/종이업	17.61	8.25	3.56	4.13	8.20	6.98	6.41	55.13
제일약품	식약/섬유/종이업	16.77	7.35	4.71	2.99	4.80	7.52	5.57	49.72
조광포인트	금속/비금속/화학업	13.53	8.25	3.54	3.42	6.85	6.67	5.64	47.91
조선내화	금속/비금속/화학업	13.51	7.35	5.50	3.00	5.70	5.53	5.39	45.97
종근당	식약/섬유/종이업	12.70	8.75	4.14	2.99	4.80	8.22	6.35	47.94
종외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5.01	7.65	4.69	2.99	5.70	6.99	5.91	48.95
진흥기업	비제조/서비스업	13.11	9.15	4.36	2.25	5.70	6.05	3.92	44.54
케이씨텍	전기전자/기계업	14.43	7.95	2.16	2.90	6.40	6.16	5.75	45.74
케이티	비제조/서비스업	16.45	7.65	3.20	4.14	5.70	7.55	5.73	50.43
케이티앤지	식약/섬유/종이업	17.70	9.95	5.34	3.48	6.60	6.99	6.27	56.33
케이피케미칼	금속/비금속/화학업	16.09	8.85	3.01	3.01	4.80	4.69	4.65	45.09
코리아씨키트	전기전자/기계업	16.07	8.55	2.29	3.42	5.50	3.80	4.70	44.34
코오롱건설	비제조/서비스업	15.76	8.65	5.09	3.43	6.40	5.40	4.84	49.57
코오롱유화	금속/비금속/화학업	15.63	8.65	2.72	3.45	5.70	6.17	5.22	47.56
태경산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5.45	8.85	4.81	3.70	4.80	5.37	5.27	48.25
태양금속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3.49	7.55	3.17	3.33	7.30	5.86	4.44	45.15
태영	비제조/서비스업	12.94	6.95	4.54	3.29	6.15	6.82	5.07	45.76
태원물산	금속/비금속/화학업	16.85	7.65	1.89	3.60	5.70	4.30	4.75	44.74
태평양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6.33	8.85	3.31	2.99	4.80	7.60	4.39	48.27
퍼시스	식약/섬유/종이업	16.01	7.35	3.94	4.13	6.15	5.65	5.60	48.83
포스코	금속/비금속/화학업	17.80	8.95	4.65	3.36	6.40	6.47	6.17	53.81
풍림산업	비제조/서비스업	13.77	8.85	5.07	3.87	5.70	5.51	4.11	46.88
풍산	금속/비금속/화학업	14.00	7.65	3.84	3.45	7.05	4.83	5.03	45.86
하이닉스반도체	전기전자/기계업	18.02	9.95	3.20	3.60	7.05	5.79	6.64	54.26
하이트론시스템즈	전기전자/기계업	14.63	8.85	3.21	2.93	4.80	6.55	5.04	46.02
한국가스공사	비제조/서비스업	12.74	9.15	4.87	3.45	6.60	5.25	3.99	46.06
한국고덴시	전기전자/기계업	15.54	8.35	2.08	3.50	5.70	5.30	5.37	45.85
한국단자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6.84	8.75	2.71	3.47	5.70	5.43	5.11	48.01
한국셀석유	금속/비금속/화학업	16.49	9.15	3.22	3.03	5.50	5.85	4.52	47.76
한국제지	식약/섬유/종이업	13.67	7.95	4.83	2.70	6.40	5.06	4.20	44.82

기업명	16회 업종분류	건전성 (20점)	공정성 (11점)	사회봉사 기여도 (7)	소비자보호 만족도 (7)	환경보호 만족도 (10)	종업원 만족도 (10)	경제발전 기여도 (10)	정량평가 (75)
한국주철관공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6.00	8.35	3.98	3.15	5.70	4.21	4.61	46.00
한국철강	금속/비금속/화학업	15.50	7.25	4.46	2.94	5.70	4.43	4.49	44.78
한국카본	전기전자/기계업	16.66	7.35	2.18	3.00	5.50	4.52	5.34	44.55
한국콜마	식약/섬유/종이업	15.10	8.25	2.80	3.41	5.50	6.62	5.19	46.87
한국타이어	금속/비금속/화학업	15.34	7.55	2.40	3.01	7.30	5.91	6.51	48.01
한국프랜지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2.24	8.85	4.25	3.08	5.70	6.24	4.52	44.88
한독약품	식약/섬유/종이업	14.58	8.65	4.44	2.97	5.70	7.40	4.53	48.28
한라공조	전기전자/기계업	13.54	7.65	3.83	2.25	7.75	5.00	4.53	44.54
한미약품	식약/섬유/종이업	15.04	9.15	4.49	2.99	5.50	7.52	6.08	50.77
한샘	비제조/서비스업	16.20	8.25	3.17	3.33	5.95	7.67	3.90	48.47
한솔제지	식약/섬유/종이업	12.91	7.65	4.66	3.10	8.20	6.24	4.10	46.86
한솔케미칼	금속/비금속/화학업	15.91	8.45	1.89	3.53	5.95	6.76	5.19	47.68
한솔CSN	비제조/서비스업	16.55	7.35	2.48	3.75	4.80	6.29	5.01	46.24
한솔LCD	전기전자/기계업	18.41	7.35	4.43	3.01	5.50	4.66	4.92	48.27
한솔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3.43	9.15	5.20	2.99	4.80	7.56	5.22	48.35
한일시멘트	금속/비금속/화학업	15.95	8.85	4.77	3.56	6.60	4.38	5.00	49.11
한일이화	전기전자/기계업	12.85	7.55	5.50	2.70	5.70	6.61	4.81	45.71
한진	비제조/서비스업	14.23	7.35	6.51	3.46	5.70	5.23	3.25	45.74
한진해운	비제조/서비스업	16.69	8.25	3.56	3.03	5.50	5.86	3.41	46.30
한화석유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4.44	7.35	4.08	3.38	8.20	4.52	5.66	47.63
현대건설	비제조/서비스업	15.74	7.65	3.14	3.24	6.40	6.85	4.83	47.85
현대미포조선	전기전자/기계업	15.41	9.15	4.95	2.97	5.70	5.28	5.02	48.47
현대백화점	비제조/서비스업	16.16	8.35	2.17	3.45	5.50	6.46	3.96	46.06
현대산업개발	비제조/서비스업	16.12	8.25	3.42	3.56	6.40	5.73	4.77	48.25
현대시멘트	금속/비금속/화학업	15.39	8.65	5.37	3.06	5.70	4.01	4.35	46.52
현대약품공업	식약/섬유/종이업	15.36	8.85	4.24	3.57	5.70	8.01	5.49	51.23
현대엘리베이터	전기전자/기계업	16.42	9.15	3.63	3.75	4.80	5.02	5.65	48.42
현대제철	금속/비금속/화학업	14.06	8.65	3.44	2.70	7.30	5.64	5.71	47.50
현대중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6.80	7.35	4.57	3.01	6.40	6.42	6.31	50.86
현대페인트공업	금속/비금속/화학업	13.94	8.85	2.43	3.39	5.70	7.92	4.81	47.05
현대하이스코	금속/비금속/화학업	14.02	7.75	3.30	3.45	6.40	4.83	5.49	45.24
현대DSF	비제조/서비스업	17.39	9.45	2.46	3.04	4.80	6.23	3.74	47.10
현대H&S	비제조/서비스업	15.77	8.65	4.18	2.97	5.50	6.19	3.78	47.04
호남석유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5.48	8.65	4.22	3.41	7.75	5.65	5.91	51.08
호텔신라	비제조/서비스업	17.77	7.65	1.86	3.01	6.40	7.35	3.82	47.86
화성산업	비제조/서비스업	16.56	7.65	4.30	3.52	4.80	5.77	4.12	46.71
화신	전기전자/기계업	12.88	8.25	5.50	2.98	4.80	5.28	4.81	44.50
화천기계공업	전기전자/기계업	17.58	7.25	3.54	3.75	5.50	6.56	5.16	49.34
환인제약	식약/섬유/종이업	17.56	8.85	4.50	2.99	4.80	4.00	5.74	48.44
효성	금속/비금속/화학업	12.74	7.95	3.36	3.50	7.05	6.24	5.31	46.15
휴켄스	금속/비금속/화학업	16.87	9.45	4.30	3.87	6.85	5.13	4.25	50.73
GS건설	비제조/서비스업	16.40	9.15	3.01	3.44	6.40	5.84	5.74	49.98
LG생활건강	식약/섬유/종이업	15.16	8.95	2.47	3.61	7.30	7.90	5.34	50.74
LG석유화학	금속/비금속/화학업	17.42	9.05	3.78	3.03	7.30	5.47	5.38	51.43
LS산전	전기전자/기계업	16.31	9.45	2.48	2.92	6.60	5.33	7.04	50.15
S&T대우	전기전자/기계업	13.68	9.15	2.60	4.37	6.60	3.54	6.02	45.96
S&TC	전기전자/기계업	16.70	8.85	1.77	3.00	5.50	3.19	5.78	44.80
SIMPAC	전기전자/기계업	14.98	8.45	1.97	3.47	5.50	6.20	4.61	45.18
SK	금속/비금속/화학업	16.25	9.15	4.84	3.45	7.50	3.14	6.45	50.78
S-Oil	금속/비금속/화학업	14.84	9.45	3.59	3.43	7.75	5.01	5.13	49.20

2. 수상기업 발표

□ 수상기업 평가결과

기업명	건전성 (20)	공정성 (11)	사회봉사 기여도 (7)	소비자 보호 만족도 (7)	환경보호 만족도 (10)	종업원 만족도 (10)	경제 발전 기여도 (10)	정량 평가 (75)	정성 평가 (25)	총점 (100)
제일모직	17.61	8.25	3.56	4.13	8.20	6.98	6.41	55.13	20.65	75.78
한미약품	15.04	9.15	4.49	2.99	5.50	7.52	6.08	50.77	18.95	69.72
삼성테크윈	15.70	8.95	5.21	3.00	6.40	6.49	6.04	51.79	19.35	71.14
경남에너지	18.01	8.25	4.76	3.43	4.80	6.91	4.38	50.54	17.48	68.01

□ 총4개사 선정 : 大賞 1개사, 업종 최우수기업 3개사

수상 부문	기업명	대표이사
大 賞	제일모직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제진훈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한미약품(주)	대표이사 사장 민경윤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삼성테크윈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종구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경남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연욱

3. 수상기업 선정배경

□ 大 賞 : 제일모직주식회사

직물소재에서 의류완제품 등 패션전반에 걸친 사업, 케미칼과 전자재료 신소재 사업 등에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총점 75.78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다. 평가항목 별 점수를 보면, 건전성 22.41점, 공정성 10.25점, 사회봉사기여도 6.31점, 소비자보호만족도 6.38점, 환경보호 만족도 12.70점, 종업원만족도 11.73점, 경제발전기여도 6.41점 등 7대 평가항목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이러한 높은 평점을 받은 배경을 보면 먼저 고객에 대한 책무,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무, 시장에 대한 책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경영투명성을 높여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봉사 기여 부문에 있어 각종 시민사회 단체와 복지단체에 대한 기부와 각 사업장별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에서는 ‘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이란 캠페인이 눈에 띈다. 이 캠페인은 기존 기업들이 일회성으로 사회단체를 후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직접 물품기증을 통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고객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종업원 복리후생 및 교육 등 종업원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2006년부터는 훌륭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GWP(Great Work Place)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조직원 상호간 신뢰구축과 자부심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제일모직은 에너지자발적협약(VA), ISO14001인증, 환경친화성기업지정 등 환경경영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수출기여를 통한 한국경제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 한미약품(주)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미약품(주)는 제8회 경제정의기업상에서 대상 및 제약업종 부문을 수상한 기업으로, 이번 제16회에서는 총점 69.72점으로 경제정의기업상과 두 번째 인연을 맺었다. 한 마디로 말해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있어 검증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7대 평가항목 중 공정성 11.55점, 사회봉사기여도 7.24점, 종업원만족도 12.02점, 경제발전기여도 6.08점으로 이 4항목이 특히 좋은 평점을 얻었다.

이러한 우수한 결과에 대한 배경을 보면 먼저, 공정거래준수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경영 지원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작동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록회’ 등 종업원들의 자원봉사모임을 통해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와 의약품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종업원 복리후생증진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노사관계개선프로그램들을 통해 종업원들의 만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흥연구센터, 팔탄 제제연구팀, 서울 본사, 한미정밀화학 부설연구소, 국내외 협력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탄탄한 R&D 네트워크는 특유의 한국형 개량신약 개발 및 순수의약품 수출 5천만달러 돌파, 해외매출이 국내매출을 넘는 제약사라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다. 또한, 이런 탄탄한 성과를 토대로 동 회사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초기지로 북경한미약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경제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 삼성테크윈주식회사

삼성테크윈주식회사는 총점 71.14점으로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정의지수 7대 평가항목 중 공정성 11.75점, 사회봉사기여도 7.96점, 환경보호만족도 11.15점, 경제발전기여도 6.04점으로 특히 이 4항목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러한 우수한 평점결과에 대한 배경을 보면 먼저, ‘신뢰를 판다’는 경영철학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기업이 아닌 ‘품질’과 ‘신뢰’를 파는 품질경영, 신뢰경영, 고객감동경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회봉사기여도가 돋보이는데 그 이면을 보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란 이념을 가지고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봉사단은 서울/성남/창원 지역 총80여개의 봉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 이상 농촌, 공부방,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봉사활동 중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경남지역에서 ‘영정사진촬영’ 봉사와 장애인들에 대한 디지털 카메라 촬영교육 등이 돋보인다. 또한, 이 회사는 환경회계, 환경친화성기업지정, ISO14001 인증 등 친환경경영실천을 통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테크윈주식회사는 1977년 항공기 엔진과 필름카메라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터보기기를 포함한 파워시스템 사업, 자주표 등의 특수사업, 카메라와 광응용기기를 포함한 광디지털 시스템사업,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꾸준한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수출기여를 통해 국내경제의 성장 및 발전에도 톡톡히 이바지 하고 있다.

□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 경남에너지주식회사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에는 경남에너지주식회사가 선정되었다. 가스공급 및 공급설비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동 회사는 경제정의기업상에서 비제조/서비스업종이 추가된 이래 에너지사업 기업들 중 처음으로 업종최우수기업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 회사는 경제정의지수 총점 68.01점으로 우수한 평점 결과를 얻었으며, 7대 평가항목 중 건전성 22.41점, 사회봉사기여도 6.38점, 소비자보호만족도 5.68점으로 이 3항목에서 특히 우수한 평점을 얻었다.

도시가스 업무 대부분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계로 직원 개개인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자율실천윤리수칙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을 실천을 하고 있으며, 임직원 자원봉사단 ‘사랑나눔미’를 통해 지역불우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후원 및 봉사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호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남에너지주식회사는 SMS(도시가스안전관리시스템)구축, ISO9001(품질경영

시스템)인증, OHSAS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등을 바탕으로 “예방안전”을 통한 안전경영에 힘쓰고 있으며, 고객만족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안전관리 만큼 노사안정에 노력을 기울여, 설립 후 29년간 노사분규가 없는 무분규 사업장의 전통을 이어 올 만큼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2003년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라는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제16회 경제정의기업상 평가결과 해석◆

제16회 경제정의기업상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단 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2005년 회계연도의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해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일관성 있고, 통계적 오차가 적은 정량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결과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 정량평가(75점)결과에 의한 해석

2005년 한국경제는 GDP성장률은 전년 4.7%에서 4.0%로 낮아졌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수출 또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인 해였다. 국내 기업경영측면에서는 재무구조의 개선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익성과 성장성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재무구조의 개선으로 1966년 이후 최저 수준(110.9%)으로 낮아졌다. 한편 원화절상 및 고유가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등의 수익성 관련 주요지표들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경제 상황 하에 2005년 3월에는 정부, 정치권, 재계, 사회단체 간 ‘투명사회협약’체결, 2005년 6월에는 ISO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ISO 26000 국제표준 제정에 대응하고, 국내 확산을 위해 정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단체, 대학, 컨설팅사 등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진 가운데 ‘SR(Social Responsibility) 표준화 포럼’이 출범되어,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이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체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국내 상장기업들의 2005년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한 경제정의지수 정량평가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3개년 간 정량평가 항목별평균 및 정량평가 총점 평균점수>

회 수	건전성 (20점)	공정성 (11점)	사회봉사 기여도 (7점)	소비자보호 만족도 (7점)	환경보호 만족도 (10점)	종업원 만족도 (10점)	경제발전 기여도 (10점)	정량평가 총점 (75점)
14회	13.65	7.85	3.59	3.41	5.63	5.29	4.74	44.16
15회	14.23	8.14	3.51	3.35	5.64	5.51	4.74	45.12
16회	14.48	8.13	3.32	3.24	5.67	5.61	4.83	45.28

7대 항목 평균점수 총점의 추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사회봉사기여도와 소비자보호 만족도는 소폭 하락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정의지수가 여러 분야에 걸쳐 평가하는 종합적인 지수임을 감안할 때, 이는 최근 기업들의 SR(Social Responsibility) 및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 등이 사회공헌이라는 한 분야가 아닌 경제발전기여를 기본으로 하여 각 항목에 걸쳐 전반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항목별 평균점수

○건전성 항목점수는 최근 3개년 간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16회에서는 15회와 비교해서 0.25점 증가 하였다. 이는 첫째, 최근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의 개선으로 관계사지급보증과 대주주관련 임원이 줄어들고, 접대비 등의 소비성 지출이 감소하여 투자지출의 건전성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여 진다.

○공정성 항목점수는 15회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정량평가 공정성 항목 만점이 11점임을 감안할 때 낮은 평균이 아니며,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와는 달리 투명성과, 공정거래준수 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와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봉사기여도는 15회와 비교하여 1.9점 하락하였다. 이는 기업들의 각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는 증가하였으나 장애인고용, 여성채용비율 등의 개선은 아직 부족함을 의미 한다.

○소비자보호만족도 항목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개년 간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업들의 고객만족관련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ISO9000, QS9000, TL9000, BS7799 등의 품질관련 인증과 광고비 과다지출 개선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보호만족도 항목은 3개년 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사회를 위해서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한국기업 또한 그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속가능보고서, 환경보고서, 환경회계공시, 각종 정화시설 설치, 에너지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 사업장폐기물절감 등의 환경개선노력과 환경친화성기업지정, 환경방침, 환경관련인증, 환경보호프로그램 운영 등의 환경보호관련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업원만족도 항목은 3개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서 16회에서는 15회 보다 0.1점 상승하였다. 이는 종업원 복리후생증진과 교육에 대한 인적투자, 원활한 노사 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발전기여도 항목은 15회와 비교해 1.6점 상승하였다. 연구개발(R&D) 지출증가, 매출액 증가에 따른 성장성 제고, 부가가치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기인하며, 이는 2005년 내수가 미약하나마 회복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수상기업 프로필

제일모직주식회사 -大 賞-

혁신기업 제일모직의 飛上

제일모직이 세계적인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첨단소재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문별 플랫폼(Platform)을 재구축하고, 혁신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올해 혁신의 실천과 미래비전의 현실화를 목표로 혁신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고공비행을 시작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사업부문별로 수립된 중장기 과제를 치밀하게 추진해 '첨단 소재를 디자인'하는 미래비전을 앞당기고 있다.

제일모직은 '최고의 질과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벌 일류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제품, 기술, 마케팅, 프로세스 등 전사적인 경영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래비전에 대한 가치체계를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강력한 인재 풀의 구축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창의와 혁신이 바탕이 되는 조직문화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제품혁신을 위해서는 전자재료부문의 일류화 제품을 확대하고, 케미칼부문의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0대 전략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여 글로벌 수준에 맞는 R&D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선택과 자원집중을 통해 고객 경쟁력을 확보하는 마케팅 활동을 정착시키고, 모든 프로세스를 재정립해 경영혁신의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제일모직은 7대 성장엔진 추진과 신규사업기반 확대 및 신수종사업 발굴을 위한 기업체질을 강화해 2010년 매출 8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추진배경

제일모직은 일본의 도레이社와 미국의 듀폰社를 벤치마킹해 지난 1989년 케미칼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기업변신의 시동을 걸었다. 이 두 기업은 모두 섬유에서 사업을 시작, 화학 업체로 변신해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기

업으로 제일모직이 1954년 모직물 제조업체로 창립한 이후 의류사업과 합성수지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변신을 추진한 것과 흡사했다.

제일모직은 일반 범용수지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수지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룹내 수요가 있는 아이템을 생산하여 사업을 안정시킨 뒤 세계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을 추진했다.

케미칼사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추진하던 제일모직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반도체 등 전자제품의 기초 재료를 생산하는 전자재료 사업을 선정해 또 한 번의 기업 변신에 도전하게 된다. 제일모직은 1994년에 의왕사업장에 EMC(반도체회로 보호제) 생산공장을 준공해 21세기 신수종 전자재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때는 반도체 등 세계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고부가 핵심 전자소재 및 재료사업이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기존 케미칼사업으로 축적된 기초 소재 사업의 역량과 R&D 기반이 제일모직이 전자재료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또 제일모직의 전자재료 사업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내 전자, 정보통신 관계사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 사업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이 사업은 신규제품 개발 시 초기부터 세트 업체와 전자재료 업체 간 노하우 교환과 긴밀한 공동연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제일모직은 전자재료 사업화에 최적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핵심인재 발굴과 육성

"핵심인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 만나겠다. 글로벌 기업들이 탐내는 첨단소재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이 제일모직에 모이게 할 것이다."

제일모직 제진훈 사장의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제진훈 사장은 지난 2004년 취임이후 인재 발굴을 위해 미주(美洲), 유럽, 일본, 러시아 등 해외에서 매년 1,000 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다. 특히 제사장은 평소에도 핵심인재 확보와 육성에 관한 일은 CEO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하면서, 각 임원과 팀장 에게도 '기존의 프로세스와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혁신적인 사고로 인재 찾기에 나서라'는 주문을 해왔다. 특히 제사장은 핵심인재 채용 면접 행사에만 참석하지 않고, 실제 회사소개 프리젠테이션을 비롯해 전 일정에 동참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심지어 행사가 끝나고 이어지는 저녁 자리에까지 참석해 인생 선배로서 채

용 대상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이끌어 간다. 제진훈 사장은 확보한 인재의 육성과 관리를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연구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의 연구원이 직접 제사장에게 메일을 보내 CEO의 R&D 육성 의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고, 이에 제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신을 보내는 등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핵심인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일모직은 제사장의 인재경영 철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인력 멤버십 운영으로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성균관대와 차세대 분야 연구를 위한 '첨단소재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지난 2월에는 KAIST와 맞춤형 석·박사 과정 협약을 맺는 등 첨단 소재분야의 인재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제일모직이 인재 발굴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차세대 성장엔진인 전자재료 등 첨단소재 사업의 성패가 핵심 연구인력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첨단소재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무한 기술경쟁이 치열해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만이 초일류 기업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훌륭한 일터 위한 GWP시행

제일모직은 올해 훌륭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GWP (Great Work Place)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사업장 별로 진행했던 조직문화 활동을 전사적으로 통합해 인사, 관리, 지원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일모직은 올해 7월 초 각 사업부 별로 GWP 리더 발대식을 열고,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조직원 사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업부, 팀별로 회사의 비전과 경영현황을 이해하는 기회를 상시적으로 마련하고, 계층별 간담회 개최와 동시에 인사제도와 복리후생 제도를 임직원 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사내 전산망에 '열린도움방'을 열었다. 조직을 이끌어 가는 리더들에게 GWP 활동의 의미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을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서장 재량의 시상제를 확대하고 지방사업장의 공장장 현장 깜짝 방문(Surprise visit) 등 임직원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부심(Pride) 고취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업의 개념에 맞는 옷 잘입기, 칭찬문화 정착 캠페인을 시작했다. 특히 회사와 가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임직원 가족 사업장 방문과 사원 자녀 여름캠프, 임직원 가족 참여형 봉사활동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제일모직은 경영 투명성을 높여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 하는 것으로 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일모직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세 가지 방향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자체 준수수칙을 제정한다. 아울러 임직원에게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이 제시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과 핸드북을 배포해 프로그램의 개념과 실천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법규 관련 임직원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내 법무포털 시스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자료를 축적해 전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회공헌활동 개요]

제일모직은 지난 1994년 그룹의 사회공헌활동 본격 시작에 발맞춰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제일모직은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사회공헌활동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기존의 사회봉사단 조직을 4개 사업장별로 나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자원봉사센터를 각각 신설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134개 팀 단위로 봉사팀을 구성해 각 팀 별로 자원봉사리더를 임명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조직구성을 마쳤다.

[대표 사회공헌활동 - 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

제일모직은 창립 52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부문화 확산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고객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 캠페인 선포식에서 제일모직은 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중 공익 캠페인을 펼친다고 발표하고, 창립 기념행사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 기증품 아름다운 가게를 개최했다.

제일모직은 일반 고객과 가장 가까운 패션사업의 특성을 살려 빈폴 의류 제품에 '아름다운 가게' 소개 문구와 물품 기증 연락처를 담은 태그 (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 물품기증은 1577-1113)를 부착해 고객이 직접 물품기증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먼저 빈폴 제품 1만 4천여 점에 적용하고, 향후 250여 만점에 달하는 제품으로 늘릴 예정이다.

제일모직이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새롭게 전개하는 '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 캠페인은 그동안 기업이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일회성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직접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고객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역할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캐주얼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인 빈폴 제품으로 캠페인을 시작해 기부문화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회공헌활동 소개]

2006년 현재 제일모직은 총 61개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밀착형 임직원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의 73%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사랑의 성금' 제도를 통해 매년 1억원 이상의 기금을 사회시설에 기부하고 있다. 매년 9월 창립기념일을 전후해서는 전사적으로 자원봉사주간을 선포하고 창립기념 행사를 최소화해 남은 경비를 사회공헌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지난 96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협회와 공동으로 '제일모직쥘 시각장애인 탁구대회'를 매년 개최해 시각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왔다. 패션부문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을 기획해 빈폴은 매년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의 환경 정화를 지원하는 '빈폴 자연사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로가디스 그린라벨은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숲 가꾸기에 지원하는 도네이션 캠페인을 고객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제일모직은 올해 사회봉사단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봉사활동의 주요 추진 과제도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봉사활동 시간을 개인 분기별 1회, 5시간 이상으로 규정화해 자원봉사활동의 정착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활동 관리를 위한 ‘e-봉사도우미’를 사내 전산망에 오픈해 개인 및 팀 별 봉사활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제일모직은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사업장 견학과 개방 등으로 지역사회와 융화를 추진하고, 가족 참여형 봉사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율이 높은 임직원 성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칭 그랜트 (matching grant : 임직원들이 봉사활동 및 공익사업을 위해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회사도 이 금액 만큼 1대1로 매칭해 후원금을 출연하는 사회공헌활동) 제도를 활성화해 수혜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제일모직의 첨단소재사업과 패션디자인의 業의 특성을 살린 사업부문별 대표 공헌활동을 보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주)

<식약/섬유/종이업종 최우수기업>

한국형 제약기업의 신모델 한미약품

차별화 된 R&D전략으로 세계적인 제약회사 도약 개량신약으로 글로벌 마켓 노크

■ 해외매출이 국내매출 넘는 글로벌 제약기업이 지향점

1973년 창립한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회사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며 제약업계 최상위권에 올랐다. 현재 개량신약이라는 새로운 한국형 R&D전략을 선보이며 가장 주목받는 제약기업이다.

한미약품은 의약분업 후 제약 기업들의 경쟁력을 가능하는 잣대가 된 처방의약품 시장 점유율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상위품목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처방의약 일 정도로 전문 의약품의 비중이 80%에 달한다. 한미약품이 처방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회사 전체 매출의 9%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 개량신약 등 우수한 품목 연구와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력이 뒷받침된 우수한 110여개의 처방의약품 브랜드 파워와 탄탄한 영업마케팅 조직의 결합이 일궈 낸 성과다.

이런 탄탄한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개척도 활발하다. 계열사인 원료의약품전문 제조업체 한미정밀화학도 유럽을 비롯하여 중동, 일본, 남미, 동구권, 중국 등 전 세계 30여개국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설립해 현재 제약업계 중국 성공모델로 불리우는 북경한미약품 현지법인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어 나가는 것이다. 신제형 개발 및 신 물질창출 등 끊임없는 기술혁신 및 정보축적을 통해 해외매출이 국내매출을 뛰어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 개량신약(Super-Generic) 개발전략으로 제약업계 독보적 위치구축

한미약품의 강점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특유의 개량신약 및 퍼스트 제네릭 전략을 탄탄한 영업조직과 연계해 제약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앞 다퉈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신약도입(라이센싱 인)에 나설 때 한미약품은 과감한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형 개량신약 개발에 주력했다. 이 전략은 적중했고 한미약품은 '한국형 개량신약의 개척자'로 불리며 제약업계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개량신약은 기존 오리지널 신약과 다른 신규제제 또는 신규제형을 개발해 오리지널 신약보다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제네릭(복제약)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국적 제약사가 수십 년간 독점해 온 오리지널 제품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화 제품을 내놓는 것이기에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국산화 제품의 경우 보험약가도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20%정도 저렴하기에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대표적인 개량신약으로 꼽히는 한미약품의 개량신약 아모디핀(고혈압치료제, 2004년 9월 출시)은 2005년 한 해 약4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아로디핀 성분의 고혈압치료제 시장 점유율의 30%이상을 점유했다. 이 약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사의 대표적인 의약품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주요성분 특허가 2004년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먼저 선보인 개량신약이다. 2006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민경운 대표이사는 "신물질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개량신약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Cash Cow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미약품은 개량신약과 제네릭 제품을 통해 중단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신약개발 쪽으로 투입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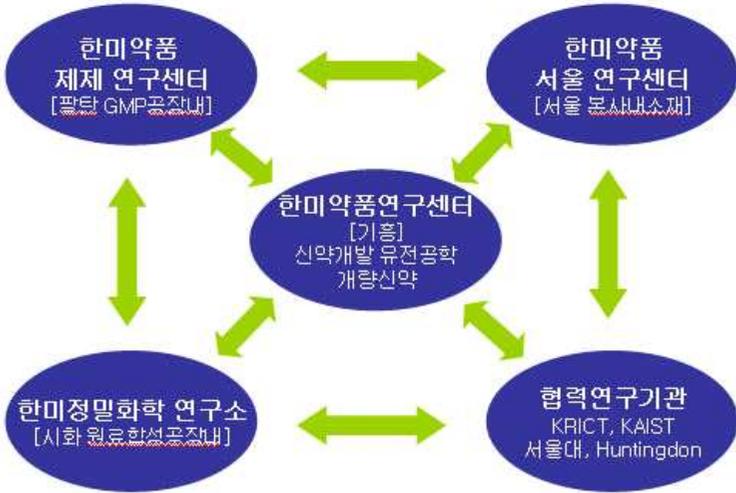
2006년 한미약품은 자사의 첫 신약이 될 경구용 항암제 '오락술'의 임상 1상을 상반기 중 돌입했다. 오락술은 지금껏 항암주사제 형태로만 존재했던 '탁술'에 경구용 형태로 개발한 것이다. 한미약품의 2005년 매출대비 연구개발비중은 9%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제약사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230여명인 연구인력을 수 년 내에 350명으로, 연구개발투자비도 매출액 대비 10%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신약개발’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미의 R&D 네트워크

■ 한미약품 기흥 연구센터- "한국 R&D의 산실로 키워갈 것"

한미약품의 R&D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기흥 연구센터, 팔탄 제제연구팀, 서울 본사, 한미정밀화학 부설연구소, 그리고 국내외 협력 연구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기흥 연구센터에서는 신물질 신약개발, 바이오의약품 개발, 개량신약 개발, 고난이도의 원료의약품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약리독성, 분석연구를 수행한다.



팔탄 제제연구팀은 신규 제제 연구와 약물전달 기반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마이크로에멀전 기술, 나노 기술, 서방화 기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한미의 창의적인 DDS 기술을 넓혀가고 있다.

서울 본사에서는 개발에서 임상까지 R&D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신제품 기획, 허가등록 업무, 라이선싱 등 우수 의약품을 개발하고,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등 연구기관과 협력해 임상 연구를 수행한다.

계열회사인 한미정밀화학 부설연구소에서는 현장에 밀착된 원료합성 공정의 개발 연구와 대량생산 연구 등을 수행한다.

이미 미국, 유럽 등 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Ceface 항생제 원료의 No.1 메이커로서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하에 전 임상 연구, 바이오 의약품 연구, 항암제 연구 등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한미약품 연구센터. 이는 연구개발에 대한 한미약품의 강렬한 의지가 응축된 미래 신약창제의 요람이다. 한미약품 연구센터는 지상8층, 연면적 3,000평의 규모로 모든 시설이 자동제어로 통제되는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운용된다.

이관순 기흥연구센터 소장은 "기흥 연구센터의 건립으로 한미의 연구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됐다"며 "기흥연구센터를 제약기업 R&D의 심장부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흥 연구센터로 신약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한미약품은 개량신약 개발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연구 능력을 활용해 항암제와 지속성 단백질 제제 신약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2010년에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약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한미약품의 R&D는 향후 국내외의 고급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연구개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글로벌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 21세기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 전문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매출이 국내매출 넘는 글로벌 제약기업 지향점 한미의 글로벌 전초기지 북경한미약품

최근 한미약품은 제약업계 최초로 순수의약품 수출 5천만달러를 돌파해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한미약품이 지향하는 해외매출이 국내매출을 넘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첫 계단을 통과한 셈이다.

해외수출실적은 2003년 3,980만불, 2004년 4,080만불, 2005년 4650만불 등 지속

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 해는 5,500만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이 추세대로라면 2008년에는 제약업계 최초로 1억불 수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비중은 세파계 원료의약품의 비중이 85%정도고 나머지가 완제 의약품이다. 원료의약품은 세프트리아손, 세프타지딴, 세포탁심, 세픽심, 세포티암 등 5품목이 주축이며 현재 유럽, 일본, 중동의 이란, 중국, 기타 아시아지역, 중남미 등 전 세계 시장에서 고품질 의약품으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라 향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324억원을 투자해 2007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 GMP 세파계 항생제 완제 공장의 본격 가동이다. 한미약품은 이 공장의 가동을 계기로 원료의약품과 더불어 완제 의약품 비중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 일본을 넘어 최대 단일 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다.

해외 수출을 통한 매출의 증가세 못지 않게 현재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한미의 글로벌 전초기지 북경한미다.

■한미의 글로벌 전초기지 북경한미

북경한미는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네릭 제약사로서의 도약을 위한 전초기지다. 그러기에 북경한미약품의 약진은 더욱 고무적이다. 96년에 설립한 북경한미약품 유한공사는 제약업계에서 이미 손꼽히는 중국시장 개척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북경한미약품의 2005년 매출액은 193억원으로 전년비 30% 증가했다. 올해는 이보다 최소 20% 이상 성장 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한다. 잘 구축된 유통망을 통해 이미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이 추가될 경우 장기간 고성장세를 유지해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단단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삼성테크윈주식회사

<전기전자/기계업종 최우수기업>

■ 회사 소개

삼성테크윈은 1977년 항공기 엔진과 필름카메라 사업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정밀기계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있다.

지난 1999년 항공기 제작 사업을 국내 항공 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에 이관하고 현재 항공기 엔진과 터보기기를 포함한 파워시스템 사업과 자주포 등의 특수사업 그리고 카메라와 광응용기기를 포함한 광디지털 시스템사업, 반도체 부품과 장비 등의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

광디지털 시스템사업은 보다 컴팩트하고 세련된 프리미엄 디지털 카메라 VLUU NV 시리즈 및 D-SLR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여 베스트셀러에 올려놓는 등 최고 수준의 디지털 화상처리 기술을 자랑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보강 된 라인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글로벌 업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시스템 사업은 전자부품 조립장비인 칩마운터 SM320 및 중고속기 SM310과 반도체 제조장비인 와이어본더 SWB-800 NEO 등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및 동남 아시아 지역과 미국, 동유럽 등 구주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도체부품 사업은 메탈 리드프레임에서 비대칭 QFP 개발, PPF 세계 기술표준 추진, MCSP 신규 패키지 독점 개발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Flex Substrate에서는 COF의 양산 개시, 고속 D램용 BOC 개발완료를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다.

파워시스템사업은 KFP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06년 GENX, KHP 사업등 차세대 항공기 및 헬기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구축함용 LM2500엔진 LPT 모듈 개발 및 납품, F100엔진 정비물량 수주 등을 통해 국내 가스

터빈 엔진 제조 및 정비 전문 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엔진분야에서 축적된 가스터빈 기술을 산업용으로 확대적용한 터보기기 사업을 일류화 사업으로 육성키 위해 초소형 압축기 영업강화 및 미주, 동유럽 신규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압축기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SM 시리즈를 개발, 출시할 예정이다.

특수사업은 세계 최고 성능의 155mm 자주포와 상륙 돌격 장갑차 등 육상 전투 장비의 개발과 생산으로 국가방위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영이념

우리는 '신뢰'를 판다(신뢰와 믿음은 곧 경쟁력)!

삼성테크윈의 경영철학은 "신뢰를 판다"는 것이다.

삼성테크윈은 다양한 품목을 다루고 있는 회사이다. 그러나 어떤 업종이건 기본이 되는 '본질'은 같다는 것이 삼성테크윈의 생각이다. 디지털카메라를 팔건 반도체부품을 팔건, 장비를 팔건 엔진을 팔건 어떠한 제품을 팔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서바이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테크윈은 고객이 우리의 제품만을 보고 거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품질'과 '신뢰'를 보고 선택한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닌 '품질'과 '신뢰'를 파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의 나눔경영

삼성테크윈의 나눔경영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모토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기쁨과 슬픔, 고통과 환희를 함께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테크윈은 1995년부터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는 전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 하는 것을 목표로, 2006년부터는 인당 년 2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중구 사장을 비롯하여 전 임직원이 나눔경영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 공부방, 쪽방,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의 고충해결에 앞장서는 등 나눔경영의 전파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삼성테크윈 사회봉사단은 서울/성남/창원 지역 총 80여개의 봉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 이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은 대표 제품인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효사상을 실천하는 '영정사진촬영'활동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경남지역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연간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 활동은 2005년 BBC에서 방영한 '삼성의 사회공헌'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카동아리 봉사활동은 자칫 디지털機器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디카 촬영법을 교육하고 함께 활동한 사진을 연말에 전시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심어주고 있다.

이 밖에도 농산물 구매·농촌체험학습·농촌일손돕기·독거노인 지원의 '농촌봉사활동'(7개마을), 매월 백혈병 환우돕기 모금행사인 '건강달리리', 지역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소방방재봉사활동', '철새도래지 보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업간의 '사랑지수'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는 자원봉사유급휴가제, 매칭그랜트, 자원봉사보험, 우수활동 포상 등의 제도적인 지원 통해 임직원들 활동을 적극 돕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사랑의 펀드' 조성을 통해 나눔 활동의 실천자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복된 사회가 한 걸음씩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 하에 삼성테크윈은 나눔경영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환경경영

삼성테크윈은 지난 1996년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표준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였고, 1997년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지정 받음으로서 '환경경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04년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종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50여명이 모여, 국내 정밀기계 업계로는 최초로 「글로벌 환경경영」 공식 선포식 행사를 가지기로 하였다.이 행사에서는 「친환경경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환경'을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채택하여,

- 1) 글로벌 환경경영 체계로 인류복지에 기여,
- 2) 친환경제품 개발 및 제조에 핵심역량 집중으로 지구환경 보존,
- 3) 글로벌 환경경영으로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 공영 도모, 등 인류복지와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추진해야 할 3대 기본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삼성테크윈의 「글로벌 환경경영」 선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부터 나온 선진국의 RoHS, WEEE 등 환경규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친환경제품 제조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환경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다.

■세계기업으로의 도약

삼성테크윈은 지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주도권 확보와 세계 일류 수준의 제품 육성을 위해 그룹 관계사 및 해외 협력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및 부품 등 기술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슬림형 제품과 고화소·고배율 등 차별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프리미엄급 제품을 출시하고,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카메라의 일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사업인 카메라폰 모듈도 1M, 1.3M급 고화소 CMOS 및 2M, 3M 모듈을 양산하는 등 고화소 카메라 모듈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500만, 700만, 1000만화소급에 이르기까지 고화소·고기능 제품 개발을 선도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시스템 또한 2005년 초 출시된 세계 최상급의 중속기 칩마운터 신제품 SM320의 성공적인 런칭과 더불어 중고속기 SM310 등 칩마운터 신제품 출시, 플립 칩 본더, 바이오 장비, 전자제조 장비 In-Line 시스템 등으로 관련 사업을 보다 다각화 하고,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부품 사업은 2006년을 World Top 기반 확보의 해로 정하고, Non 메탈계 LCD용 COF와 고속 D램용 BOC, 메탈계인 μ -PPF와 MCSP, 그리고 RFID등 미래 성장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를 통해 대형 거래선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파워시스템은 2006년에는 차세대 전투기 양산물량의 확대 등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외형 성장을 이룩하고, 미래 주종사업으로 초고속회전체 핵심기술, 연료전지용 공기압축기, 시스템 에어컨용 냉매압축기 개발 등에 더욱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테크윈은 앞으로도 광디지털과 반도체 부품, 반도체 시스템, 그리고 파워시스템과 특수사업 중심으로 세계적인 첨단 기술 회사 그리고 고수익을 실현하는 초우량 회사로 발전하여 나갈 것이다.

경남에너지주식회사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회사소개 및 경영방침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경남에너지는 1972년 경남연탄으로 창업한 이후 중·서부 경남일대에 걸쳐 서민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해온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현재 본사를 중심으로 창원, 마산, 김해, 진해, 거제·통영지역 5개 지사를 통해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경남지역 35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처하고 미래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경영면에서는 국제적인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및 보건안전경영시스템(OHSAS 18001)등을 구축해 경영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전 도시가스시설을 한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중앙통제실과 안전조치능력 향상을 위한 배관트레이닝센터를 구축하고 지역관리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에너지는 지역난방, 구역형집단 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종합에너지 회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예방안전 및 고객만족경영

경남에너지는 "예방안전"이 고객감동이라는 인식 하에 가스안전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예방안전"을 회사 경영방침의 최우선으로 정하여 전 직원이 재해 없는 안전 문화 정착에 전념토록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을 안전사고 제로화에 초점을 맞춰 실천하고 있다.

2003년 태풍매미 내습 시 완벽하게 준비된 시설제어 시스템 가동과 철저한 상황 통제로 가스누출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상공급 시설준비 및 환산망 공급라인 통제방식으로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사후복구 작업으로 우수한 안전관리 능력을 인증 받아 2004년 제11회 가스안전축진대회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2006년 제13회 대회에서는 도시가스분야 산업포장을 수상하여 기업의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SMS(도시가스안전관리시스템)구축,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OHSAS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규정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종전의 5개 지사별 분산 감시체계를 2003년부터는 통합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ONE-CALL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경영정보시스템(MIS)의 구축으로 효과적인 정보관리를 통한 안전서비스의 체계화와 신속화를 이루었다.

내외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안전, 친절, 정확을 고객만족에 대한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고객Needs파악과 친절서비스 Skill 관리를 통한 고객만족이 회사의 경쟁력 확보라는 인식아래 2003년 4월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최접점에서 민원 및 각종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관리소 민원처리 실적에 대한 해피콜과 처리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현하고 있다.

■연구개발 노력 및 인적자원 투자

도시가스 장비의 개선을 위해 2년 여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대구경 PE배관에 천공과 활관작업이 가능토록 제작된 KPEM (Kyungnam Energy Poly Ethylene Stopping Machine)장비에 대한 특허(특허 제0524195호)를 획득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활관 작업 시 이용하던 가스Bag의 대용으로, 개선된 가스 스톱퍼(명칭 : KPS STOPPER, 특허 제10-0570263호) 장비를 자체 제작, 현장실증 TEST및 안전성을 검증한 후 STOPPING작업에 직접 활용, 특허를 받았다. 또한 다수의 제품을 제작하여 실용신안 및 특허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원가 절감, 배관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연간 1억 여원의 비용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도시가스사 및 관련 시공사에 보급이 될 경우 사고위험 감소와 원가절감,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가능공 육성을 위해 당사 부지내 90여평에 1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실제 도시가스 공급 시설과 똑같은 교육현장을 구현하여 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작

동상태와 필요한 작업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8월 개소한 이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6시간 이상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교육훈련을 통한 사내기술 인재 양성과 더불어 안전관리 분야의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연료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남에너지는 인적자원의 무한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학습조직을 활용, 전문가 집단을 양성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후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이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 발표회에 끊임없이 참석을 하고 있으며, R&D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CES, GHP, Co-Gen, CNG충전사업 등의 대체 에너지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업계 최초로 에너지진단사 4명을 보유하여 ESCO사업에 진출, 수용가의 에너지손실요인 정밀분석과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방안을 제시하여 고유가 장기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환경을 바탕으로 인재를 육성해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초석을 다져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을 통한 인적 투자도 활발히 시행되어지고 있다. 계층별 직무능력 습득과 전사원이 집체 교육, 동료 상호간 팀웍 및 조직력 배양을 근간으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함께 역동적 조직분위기 조성, 자랑스러운 경남에너지인상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조직의 문제점 검토와 개선, 관리의 기본적 사고방식, 집단성격과 조직 종합력 등 사고의 틀을 넓힐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업무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유도를 위해 사내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식경영의 핵심기능인 COP활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과 더불어 직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비정형지식의 형식화 활동,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사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사원합동연수와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인 E-Learning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전사원의 다기능공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교육장자 개설 및 교육실습 훈련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노사화합 및 임직원 일체감 조성 활동

경남에너지가 가스안전관리 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게 있다. 바로 노사안정이다. 경남에너지는 1977년 노동조합 설립 후 29년간 노사분규가 없는 무분규 사업장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현하고 있다.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직원들의 권익신장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1997년 노사우량기업 및 2002년 신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합리적 성과배분 실현을 위해 성과급제 도입하여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최고 경영자와의 만남의 장인 열림과 어울림 마당을 전사원을 대상으로 매월 개최하여 조직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임원회의 및 간부회의 개최 후 사내 그룹웨어에 회의내용 공지하여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애사심 및 자긍심 고취와 노사일체감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3박4일간 일본 등에서 사원자녀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공간 설치운영, 각종 운동시설(탁구장, 테니스장, 헬스장, 농구장, 배구 및 테니스장) 및 휴게실, 도서실, 휴양소 운영, 무주택 사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평생교육원, 대학원진학, 자녀학자금, 유치부 자녀 조기교육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윤리경영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한 봉사가 아닌 미래 고객 창출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경남에너지는 자원봉사단 ‘사랑나눔미’ 조직은 물론 전 사원이 10여년 전부터 다양한 지역사랑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경남에너지는 비인기종목인 경남핸드볼협회의 협회장직과 함께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연간 3천만원씩 후원해오고 있으며, 2000년부터 지역의 불우시설 6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방문 및 30만원 지원, 소년소녀가장 12가구를 선정, 장학금 및 매월 생활보조비 2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마산지역 태풍 매미 내습 피해 때는 경남도에 성금 1억원을 기

탁했으며, 김해·거제지역 3개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돕기 및 특산물 구매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환경사랑 어린이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해 어린이들의 가스안전과 환경사랑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는 명실상부한 그림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경남에너지는 또 2003년부터 갱생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사랑의 PC전달 및 쌀 모으기 후원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1996년부터 유명인사 초청 시민교양강좌를 개설해 지금까지 박완일, 윤방부, 황수관, 구성애, 김준호·손심심 부부, 김병조 교수,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 한비아씨 등을 초빙하는 등 시민사랑 나눔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밖에 경남 직장장애인축구단 어시스트 창단 후원 및 정기 친선경기 개최, 재가장애인 자원봉사 및 후원, 환경사랑 실천 및 난청환자돕기 기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사랑나눔미 회원 및 임직원 가족들이 경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장애우 10명과 함께 김해시 진례면 수로요 도자기 마을에서 일일도자기 체험교실 행사를 시행했다. 회사는 또 이날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재가장애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인 ‘Beautiful Life’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연간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경남에너지는 자원봉사 단체인 사랑나눔미를 통해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 소외된 이웃의 나들이 체험 행사, 지역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 특별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할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 업무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계로 직원 개개인의 윤리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 윤리관과 직업의식을 기초로 하는 자율실천윤리수칙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부서별 윤리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수칙항목을 정하고 항목을 팀 별로 거치하고 있으며, 연말 자율실천 윤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사례 등을 선발하고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IV. 主催機關 紹介

경제정의연구소(KEJI)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시민이 앞장서 ‘사회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1990년 5월 15일에 회원이 중심이 되어 재경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경제윤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 환원과 분배의 정의 그리고 정부의 바른 경제정책 실현을 이루고자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정의연구소는 세계의 시민사회단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1세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경제정의연구소 임원명단

- 고 문** 변형운(서울대 명예 교수, 연구소 초대 및 2대 이사장)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 3대 이사장)
이종훈(전 경실련 공동대표, 4대 이사장)
강철규(공정거래위원장, 5대 이사장)
조창현(연구소 前이사, 한양대 前부총장)
이근식(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6대 이사장)

이 사 장 정 재 영(성균관대 부총장)

소 장 권 영 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이 사

김국주(전 제주은행장)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교수)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안동규(한림대 경영학 교수)
정미화(변호사, 법무법인 남산)
안동규(한림대 경영학 교수)
최정표(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 경제학)
홍종학(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감 사

곽지웅(공인회계사)
오일석(공인회계사)

사 무 국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및 경제정의연구소 국장)
서희경 부장, 권오인·유현석 연구원

기업평가위원회

1. 기업평가위원 소개

위원장

곽수근(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평가위원

김헌(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김정인(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김완희(경원대 경영학부 교수)

김만환((주)중소기업유통센터 과장, 경제학 박사)

백삼균(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교수)

설원식(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효창(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염지환(한양사이버대학 e-비즈니스학 교수)

정윤선(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경제학 박사)

정해봉(에코프론티어 사장, 경영과학 박사)

한흥렬(한양대 경제학 교수)

홍길표(천안대 경상학부 교수)

2. KEJI 평가모형 발전과정

▷ 창출과정 :

- 1) 사단법인 경제정의연구소에서 1991년 3월 연구사업 채택함.
- 2) 동년 9월 평가지수를 작성하여 연구소 명칭을 따 經濟正義指數(KEJI INDEX)로 명명함.
- 3) 동년 12월 11일 “사회적 생산성에서 본 우량기업의 조건” 주제(최종태 서울대 경영학 교수)의 세미나의 1993년 3월 4일 “경제정의 기업평가의 개념적 틀”주

제로(곽수근 서울대 경영학 교수)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모형을 발전시키고 이번 2월 3일에는“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쟁력 강화” 주제 (신유근 서울대 경영학 교수)와 “기업의 사회적 성과 모델”주제(한정화 한양대 경영학 교수)발표와 토론의 세미나 개최로 세 번째 공론화의 장을 갖게 됨.

- 4) 본 경제정의지수개발에는 대학, 언론, 정부, 기업, 노총, 시민단체, 기업연구소, 민간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계속 국민적인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고 있음.

▷ 평가경과

- 1) 91년 12월 11일 제1회 「세미나」 및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
- 2) 93년 3월 4일 제2회 「세미나」 및 시상식.
- 3) 94년 2월 3일 제3회 「세미나」 및 시상식
- 4) 95년 1월 17일 제4회 시상식
- 5) 96년 2월 15일 제5회 시상식
- 6) 97년 3월 11일 제6회 시상식
- 7) 98년 4월 15일 제7회 시상식/한겨레신문사와 공동
- 8) 99년 4월 21일 제8회 시상식/한겨레신문사와 공동
- 9) 2000년 5월 9일 제9회 시상식/한겨레신문사와 공동
- 10) 2001년 4월 19일 제10회 시상식/한겨레신문사와 공동
- 11) 2002년 2월 21일 제11회 시상식/한겨레신문사·문화방송과 공동
- 12) 2003년 2월 20일 제12회 시상식/한겨레신문사와 공동
- 13) 2003년 12월 12일 제13회 시상식/공정거래위원회·한국증권거래소 후원
- 14) 2004년 12월 15일 제14회 시상식/공정거래위원회·한국증권거래소 후원
- 15) 2005년 12월 15일 제15회 시상식/공정거래위원회·한국증권거래소 후원

▷ 홍보·교육

- 1) 92년 2월과 93년 9월 “경제정의 성과로 본 우량기업평가” “92한국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책자(235쪽) 발행하여 기업과 언론·정부 및 전국의 대학 및 공공도서관 보급.
- 2) 98년 9월 “한국기업의 평가” 를 발행하여 기업과 대학 및 전국서점 보급.

▷ 연구 산업의 성과

- 1) 평가모형 존재 자체가 기업들에 대한 선도적 방향제시
- 2) 시상과 평가 자료집을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소비자 홍보와 교육적 효과
- 3) 대학의 경영학 박사 부문의 논문 등 새 학문개척의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
- 4) 환경·소비자단체의 참고 자료와 가치 증대 기대
- 5)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환경·산업재해·공정거래 등을 통제하고 있는 정부 각

부문을 도와주는 역할,

- 6) KEJI Index에는 있으나 정부에서는 개발이 되지 않은 정보를 개발시키고 정보의 질을 개선시키는 상당한 역할.
- 7) 기업에 대한 2회의 설문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업이 사회성과에 반응할 수 있는 자극제.

▷ 서적발간

- 1) 2002년 9월 18일 경제정의기업상 10년 평가 및 경영모범사례집 출판
『새로운 경쟁력, 기업의 사회적 성과』
『윤리경영이 경쟁력이다』 2권 발간
- 2) 2004년 6월 20일 『윤리경영이 경쟁력이다』 초판2쇄

다국적기업평가위원회

□ IMF 관리 체제이후 외국자본의 직접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급속히 증대되어 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 또한 외국으로 많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은 한국기업이 해외로 영역을 넓혀갈 것이 예상된다. 개방화된 국민경제 내에서 외국계 기업이 기업활동의 투명성, 건전성, 공정성, 효율성, 사회적 책임성 등 선진기업경영방식을 한국시장에서 현지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감시하여 외국기업이 국민경제를 더욱 살찌우고 건강하게 활동을 하도록 하고자 한다.

- 2001년 11월 21일 「바른외국기업상」 첫 시상
- 2002년 12월 12일 「제2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 2003년 11월 12일 「제3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 2004년 10월 26일 「제4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 2005년 10월 28일 「제5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 2006년 10월 25일 「제6회 바른외국기업상」 시상식

□ 평가위원 소개

위원장	김용덕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장
부위원장	류원우	(주)포엘 상무이사, 경영학 박사
	표정호	순천향대 경영학부 교수
평가위원	김경철	공인회계사
	김지환	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학 교수
	박의범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송운학	경영지도사
	신건철	경희대 경영학 교수
	윤민상	공인회계사
	이현식	강릉대 무역학 교수
	위평량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전병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
	정덕주	서해대 전산세무회계과 교수

경제정책연구위원회

□ 경실련 시민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비판과 대안을 함께 결합시킨다는 점에 있다.

□ 경제정책연구위원회는 국내외 경제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문제의 실태파악 및 경제정책연구를 통한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방향의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실현시키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경제정책 연구위원 소개

위원장 권영준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위원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 교수
김희탁 상명대 경영학 교수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 교수
노영록 변호사
서헌제 중앙대 법학과 교수
안동규 한림대 경영학 교수
이봉의 경북대 법학 교수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 군산대 경제학 교수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 교수
함시창 상명대 경제학 교수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교수

문인철 전임연구원(경제학 박사)
박상안 전임연구원(경영학 박사)
양덕순 전임연구원(소비자아동학 박사)
이혜란 전임연구원(경제학 박사)

〈부 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수와 기업 지배구조 평가모형들의 소개 및 분석

공동연구원: 김헌, 임효창, 홍길표

전임연구원: 박상안(경제정의연구소)

제1장 서론

경제주체의 한 축을 구성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그 어느때보다 한창이다. 최근 언론과 월드컴등 미국기업들의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은 경영성과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 윤리 의식이 희박할 경우 시장과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상실하여 결국은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잘 실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존슨&존슨이다. 이 존슨&존슨은 이른바 ‘타이레놀 사건’을 통해 윤리경영의 선두기업으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된 ‘타이레놀 사건’은 1982년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망원인은 타이레놀 속의 독극물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타이레놀의 제조사인 존슨&존슨은 빠르고 신속하게 사고에 대한 원인이 밝혀질때까지 타이레놀을 소비자들이 복용하지 말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존슨&존슨의 행동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주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지배구조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의 기업경영에는 물론 투자자와 정부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대기업의 실패가 기업경영의 견제와 감시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선별투자하는 관행이 생겼고, 이에 따라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재무적 성과, 주식이치와의 상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세계수준의 국제적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한 기업은 높은 수준의 주식이치가 인정되는 등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왔다. 즉,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비중을 늘림으로써 프리미엄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 수행과 세계수준의 국제적 기업지배구조 기준의 적용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달라질 뿐만아니

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업들 뿐만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과 투자자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들과 관련된 평가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들과 관련된 평가지수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두 부분중에서 특히 사회적 책임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사적 논의과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특징과 책임활동에 대한 분류 - 경영전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
제4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견해 - 긍정적인 견해 - 절충적인 견해
제5장 국가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사적 변천 및 실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일본 - 유럽 - 한국
제6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
제7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수	
제8장 기업지배구조의 평가모형	
제9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실행 - 정부의 지원 확대 - 사회적 네트워크 확립
제10장 결론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과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가져다 주는 효과와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별로 사회적 책임의 변천과정과 그 실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제6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7장과 제8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수들과 기업지배구조의 평가모형들을 소개하고 설명한다. 그 다음 지금까지의 논의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는 순서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수들과 기업지배구조의 평가모형 소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요약하고자 한다.

제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수

198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규제완화와 시장경쟁의 격화로 기업이 지배하는 생활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와 같은 기업의 이익집단들은 기업이 이윤창출이라는 본원적인 목표 외에 환경, 노동 등 사회 전 영역에 대해서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실행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즉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함께 기업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욕구만을 충족시켜 주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기업은 단지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명체로서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발전과 함께 사회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책임을 다해 ‘인간가치’ 실현에 공헌해야 한다는 기업인 및 국민의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기업과 관련된 이익집단들에게 또는 해당 기업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주는 여러 지수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수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FTSE4GOOD 지수

영국의 주가지수 전문기관 FTSE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 (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SRI로 구성된 주가지수를 개발하였다. FTSE4GOOD 주가지수는 국제적으로 수용된(Internationally accepted)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투명한 지수계산방식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FSTE4GOOD주가지수의 개발이유는 투자자들이 지금껏 사회적 책임을 잘 준수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누리오며 따라 현재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펀드에 대한 투자욕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투명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듦으로써 이와 같은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주가지수 지표를 만들게 된 것이다.

1) FSTE4GOOD의 특징과 인덱스 개발 순서

FSTE4GOOD 주가지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의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FSTE4GOOD은 투명하고 시장중심의 주가지수라 할 수 있다. 독립된 FSTE4GOOD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윤리강령(예: UN Global Compact,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분석하여 도출한 선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

선별기준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세 분야(환경의 지속가능성 추구,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 추구, 보편적인 인권 보장 및 지원)에서 기업이 투자하는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을 공개하고 성과를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인덱스의 개발순서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먼저 FSTE4GOOD 자문위원회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된 국제 윤리강령 표준을 참고로 해서 인덱스에 포함될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을 도출한다.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도출한 초안을 폭넓은 세계시장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자, 정부기관, 상장기업 및 이익단체로부터 초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자문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시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자체적으로 도출한 초안을 수정해서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2) FSTE4GOOD의 선별기준

FSTE4GOOD 주가지수는 성격상 담배제조업, 우라늄 추출업, 핵무기의 부품 혹은 전체를 생산하는 기업, 무기류 제조업, 발전소 소유 혹은 운영기업, 환경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은 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FSTE4GOOD 주가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련 기준

환경중심 정책을 수행하는 기업만이 FSTE4GOOD 주가지수에 포함된다. FSTE4GOOD의 경우, 기업의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큰 기업일수록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정책, 운영, 보고에 적용되어진다. 이렇듯, 환경과 관련한 선별기준에 있어서 기업의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기업의 환경영향정도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STE4GOOD 주가지수에서는 특정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기업이 속한 산업을 기준으로 환경영향 大, 환경영향 中, 환경영향 小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업의 환경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요건과 추가요건에서는 기업전반에 환경중심 정책이 융화되었는 지를 제1의 고려요소로 삼고 있으며 또한 고위 경영진의 의지, 환경정책의 정량적 목표 및 달성 여부, 모니터링, 공시 등을 주요 고려요소를 삼음으로써, 기업의 의지-목표설정-성과측정-외부공개라는 4박자의 조화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운영관련 기준에서는 환경정책 유무, 환경영향 파악, 주요 분야에 대한 문서화된 목표나 목표치, 절차 및 책임, 매뉴얼, 행동계획, 과정의 아웃라인, 환경 시스템의 요구사항 대비 내부감사, 내부보고와 운영 리뷰 검토 등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보고체계와 관련한 핵심요건과 추가요건에서는 환경정책 및 기업 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파악을 핵심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환경문제 인식이 환경정책의 토대라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2) 사회적 및 이해관계자 관련 기준

사회적 및 이해관계자 관련 기준으로 주가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 자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다음 7가지 지표 중 적어도 2개 지표를 포함하는 공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1> 기업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지표

관련 영역	지표
정책	윤리강령 혹은 경영원칙 제정
	고용평등정책 혹은/ 및 연간보고서 혹은 웹사이트에 고용평등에 대한 의지 명시
운영	고용평등 시스템의 증거로써 다음 중 하나 혹은 이상의 내용포함: 유연한 노동시간 및 가족수당(유연한 노동시간, 자녀양육지원, 작업분담, 휴직, 법적기준 이상의 모자 혹은 부자수당 중 적어도 3가지 이상 충족), 혹은 경영자의 10% 이상이 여성이거나 여성 혹은 소수인종의 비중이 전체 작업장에서 2/5이상일 경우
	다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포함하는 보건, 안전 시스템 유무: 수당, 보건 및 안전 훈련의 세부내용, 공개된 산업재해 건수
	훈련 혹은 종업원개발시스템이 다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때: 스태프의 연간 훈련 검토 (수치가 공개된 스태프의 25%이상), 훈련에 투자된 시간과 경비에 대한 상당한 자료가 공개될 때
	노조합의 혹은 다른 협의에 의한 합의를 포함한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는 증거제시 (수치가 공개된 스태프의 25% 이상을 포함)
실행/성과	50,000를 넘는 기부를 한 경우/ 종업원기부제도(payroll giving scheme)/지역사회 기부제도에 선물 혹은 파견자를 제공하거나 기부 혹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책임을 고위 경영자가 담당

(3) 인권관련 기준

인권 관련 기준으로 영향이 큰 (High Impact)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음의 4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인권관련 기준을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 유엔(United Nations)의 만민인권선언문 조인한 경우.
- 세계노동기구(ILO)의 주요 노동 기준 중 둘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의지를 공적으로 표명한 경우.
- 세계 설리반 원칙 (Global Sullivan Principles)에 조인한 경우.
- 글로벌 컴팩트 (Global Compact)에 조인한 경우.

여기서 고영향(High Impact)기업이란 다음과 같다.

FSTE4GOOD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인권보호 상태가 낙후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인권관련 영향이 큰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다음으로, FSTE4GOOD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산업으로 규정한 산업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산업

광산업	석유 및 천연가스
화학	건설 및 건축자재
철강 및 기타 금속	항공 및 방위
전자 및 전기	엔지니어링 및 기계
텔레콤	전기
은행	정보기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SE4GOOD 주가지수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추구,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관계 추구, 보편적인 인권 보장 및 지원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를 선별기준으로 이들 분야에 투자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기업을 주가지수에 편입시키고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을 공개하고 성과를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매우 투명하고 시장중심적인 주가지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주가지수는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인 만큼 해당 기업이 얼마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다른 지수들과는 성격이 다르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2. CEP(The 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

미국에서 1969년 ‘경제최우선협의회(the 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가 설립되었을 때만 해도 기업들은 환경이나 자선사업, 공정한 고용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다. 오늘날 CEP 및 그 회원들에 의해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1,000여 종이 넘는 간행물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탁아시설이나 대기오염, 직업 안정성, 계약보호정책에 관한 것이다.

CEP의 목표는 미국 국민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며, 기업들이 종업원, 다른 회사들, 투자가, 소비자들을 공정하게 다루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CEP의 주요 간행물 중 ‘미국 기업의 도덕성평가’가 있는데 이 책은 130개 미국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그 회사의 제품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자지침서’는 경제정의 투자운동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주요 경제정의기금을 제시하고 100여 개의 공기업을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CEP는 매년 미국의 존경받을 만한 기업상을 수여하고 있다. 과거 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사장들에 의해 진행되는 축제행사는 특정지역에 두드러진 기여를 한 기업을 기리고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친 기업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언사를 퍼붓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CEP는 개인 및 재단의 기부금과 국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독립연구기관이다. 모든 CEP회원은 매년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구매’라는 책자를 무료로 구독하고 CEP 연구보고서를 매달 받아볼 수 있다. 1988년부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상점구매에 대한 빠르고 쉬운 지침서로 발행되었고 그 이후로 70만부 이상이 팔린다고 한다.

CEP가 이 안내서를 구입한 968명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78%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구매’의 기업평가를 보고 구매상품을 바꾸었다고 한다. 98%는 CEP 평가기준이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64%는 구매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구매’ 책자를 참고로 한다고 하였고, 97%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Roper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2%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회사제품을 10%정도 비싸더라도 기꺼이 구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67%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중요시한다고 조사되었다. 다른 여론기관들의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이 환경문제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이 CEP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현재 미국에는 수 천명의 사람들이 CEP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많은 회원들이 기업측에 투고를 하고 그들이 다른 회사의 상품을 구입하는 이유를 담은 서신을 기업대표들에게 보내고 있다. 그러면 기업측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Borden 이사들은 CEP 실무진과 만나서 그들의 평가등급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회의 후에 이사들은 특별 개선사항과 프로그램을 회사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결국 Eden Foods는 여성을 이사진에 임명했고 자선기금 프로그램을 세웠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구매’는 영국의 구매지침서 America at the Checkout의

발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 이 지침서를 만든 새로운 소비자는 CEP를 모델로 하였고 새로운 소비자는 1991년 잡지 초판을 발행하였고, 폴란드, 캐나다, 일본의 민간단체들이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CEP는 1971년 처음 CEP지수를 사용하였다. CEP는 펄프·제지산업군에 해당하는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해통제성과를 평가하였다. 브라그돈과 마틴 역시 CEP에서 개발한 기업평판지수를 통해 환경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CEP지수의 결과가 소비자들이나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영역 중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평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ISO 26000

1990년대 들어 국제기구들은 윤리라운드 추진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윤리경영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키고 있다. 즉 윤리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상거래에 있어 글로벌 무역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OECD는 1997년 12월 ‘OECD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국제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반부패지식자료센터’를 설치하고 부패한 국가에 대한 원조중단 및 부패한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향후 금융지원에 이들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강화된 윤리라운드의 영향으로 비윤리적인 기업경영은 국제간 무역제재의 대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CSR의 표준·규범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의 상이한 CSR 표준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국제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는 ISO9000(품질경영), 14000(환경경영)과 같은 시스템 표준형식으로 SR표준 가이드라인(ISO26000)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CSR에서 C(Corporate)를 삭제하여 기업 이외에 정부·노조·시민단체 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SR)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5년 9월, 제2차 ISO SR WG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8개항 목차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ISO 26000은 기본적으로 선진국, 후진국, 공공기관, 사기업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이 될 것이며,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조직이 다루어야 할 사회적 책임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관한 효과적인 실행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현재 개발된 모범사례를 도출해서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일들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적 책임관련 작업에 가치를 부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표 3> ISO 26000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명칭	● ISO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적용범위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인증규격 아님
참고문헌	(관련 ISO 표준 및 국제법/ 지침 등)	
용어 및 정의	(규격내 필요한 용어를 정의)	
SR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과 관련지침을 존중 ● 조직의 유연성 및 자주성을 존중 ● 각국의 문화 경제적 차이 존중 ● 투명성, 공정성, 반응성, 신뢰성, 적합성 ● 관계자 신뢰와 만족을 통해 지속적 사업의 연속성 	ILO 선언, UN 글로벌 협약 등
SR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비전, 목적, 정책, 전략 및 SR 이행간의 관계 ● SR 정책 및 의무, 조직관리, 자원배정 ● 커뮤니케이션 정책 	
조직내 SR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참여 ● SR 이슈 규명, SR 이슈 분석 및 평가 ● 이행, 성과 및 이행 감시, 유지 및 개선 	
SR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원칙 및 절차 등 시스템 ● 성과 홍보 도구로서의 보고 	근로자 및 소비자 포함

자료: 『기업 및 조직의 사회적 책임』, 산자부(2005)

특히 앞으로 추진되어질 ISO 26000은 지침규격으로 ISO 9001:2000이나 ISO 14001:2004와 같이 인증을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의 의미,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이슈, 그리고 사회적 책임추진 모범사례와 같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전문지식의 정수가 될 것이며 또한 ISO 26000은 좋은 의도를 가진 기업들이 이를 좋은 실천으로 옮기도록 하는 강력한 사회적 책임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ISO 26000은 아직도 그 합의가 진행중에 있는 미완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수라 할 수 있다.

향후 ISO 26000 개발의 일정을 살펴보면 2006년 상반기에 1차 초안 완료와 2007년 11월에서 12월에 DIS 완료, 2008년에 FDIS를 완료하고 2008년 10월에 표준규격을 발간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글로벌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ISO 26000의 향후 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4. 산업자원부의 윤리경영평가

1) 국내기업의 윤리경영도입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산업자원부는 한국의 기업문화에 적합한 윤리경영 평가모델 개발에 앞서 3년 가중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50대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2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국내 50대 기업만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조사가 한국 대표기업의 윤리경영제도 도입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기업의 윤리경영체제, 즉 윤리강령, 윤리준수 프로그램, 윤리교육, 내부윤리감사, 윤리담당에 대한 항목이 그것이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기업 28개사 중 86%가 기업윤리헌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8%가 비정기적으로 윤리헌장을 수정하였으며 32%는 한번도 윤리헌장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기업의 87%가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엔론·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사건, OECD 부패방지협약 체결 등 사회환경 변화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수시스템에 있어서 응답기업의 43%만이 전일 근무 윤리담당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윤리담당 파트타임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57%로 조사되었다. 또한 윤리부서의 규모에 있어서 5명 미만이 45%, 윤리위원회 설치는 30%에 그쳤으며, 응답기업의 57%가 윤리수준 평가에 있어서 시작단계라고 응답함으로써 아직은 윤리경영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의 윤리경영 지원방법으로 조세감면, 처벌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선호한 응답이 93%에 이르렀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국내기업들에게 윤리경영 성적을 자체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모델 및 지표를 보급하기로 하였으며, 전경련은 이 모델을 보완하여 여타 경제단체, NGO, 학계, 언론계 등과 함께 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성적을 평가하고 윤리경영 우수기업을 선정·시상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 산업자원부의 윤리경영평가(2002)

산업자원부 윤리경영평가는 개별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국의 기업문화에 적합한 ‘윤리경영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국내기업들에게 자사의 윤리경영성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평가목적이 있다.

이 모델은 기업들에게 윤리경영 성적을 비교·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윤리경영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산업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02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에 걸쳐 개발한 것이다.

이 모델의 윤리경영평가 지수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기업 내·외부 모두 포함)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을 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측면에서 조사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를 다시 재분류하여 기업

의 가치와 고용창출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의 경제적 공헌지수, 사회가 기업에 대해 가지는 윤리적·법률적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공헌지수, 기부·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등을 의미하는 자발적 공헌지수와 같이 세 가지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윤리경영지수는 총점이 100점이며, 경제적 공헌지수, 사회적 공헌지수, 자발적 공헌지수의 결과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총점 100점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text{윤리경영지수}(100) = \text{경제적 공헌지수} + \text{사회적 공헌지수} + \text{자발적 공헌지수}$$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 방법인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기법을 사용하며 한국기업들은 당시 윤리경영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윤리경영단계 중 도입기로 판단하여 ‘사회적 공헌지수 > 자발적 공헌지수 > 경제적 공헌지수’ 순서로 가중치를 설정하였었다.

3) 윤리경영 평가모델 Framework

윤리경영 평가모델은 평가영역을 ‘공정성(Fairness), 투명성(Transparency), 건전성(Soundness)’ 등 세 차원에서 분석하여 평가항목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각 차원에 대한 세부사항에서는 기업내부, 1차 외부 및 2차 외부 이해관계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를 포함하고 있다.¹⁾

산업자원부의 윤리경영평가 지수의 산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공헌지수(2개)

경제적 공헌지수에서는 새로운 고용창출 인원이 총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구한 고용창출과 해당산업의 부가가치율을 100으로 해서 상대적 값을 산출해 낸 부가가치율을 평가한다.

(2) 사회적 공헌지수(30개)

사회적 공헌지수는 크게 기업내부와 1차 기업외부, 2차 기업외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기업내부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고용평등, 복리후생, 안전보건시스템, 노사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건전한 작업환경 항목과 전문경영인과 내부자거래로 구성된 투명한 경영환경 항목이 있다.

또한 CEO의 윤리경영의지와 부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과 윤리강령의 제정여부와 이를 전담하는 부서, 윤리교육의 실시여부, 준법감시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묻는 윤리경영시스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여기서 기업내부는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종업원을 의미하며, 1차 외부 이해관계자는 공급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경쟁자, 자본시장을 의미하며 2차 외부 이해관계자는 정부와 지역 사회, 환경을 의미한다.

<표 4> 기업 윤리경영평가지표

경제적 공헌지수				- 일자리 창출 - 부가가치
사회적 공헌지수	기업내부	건강한 작업환경	고용평등	- 남녀평등 - 장애인 고용
			복리후생	- 복리후생비
			안전보건	- 산업재해건수 공개여부 - 산업재해율
			노사관계	- 노사협의회 구성여부 - 노사협의회 원활한 운영
		투명한 경영	전문경영인	- 전문경영인 정도
			내부자거래	- 내부자거래 적발
		CEO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의지	- 윤리경영의지
			부정행위	- CEO 부정행위 연루
		윤리경영 시스템	윤리강령	- 윤리강령 제정 - 윤리강령 수정
			전담부서	- 윤리경영 전담부서
			윤리교육	- 윤리교육
			준법감시시스템	- 내부 윤리위반 감사제도 - 내부자 고발제
	1차 기업외부	소비자		- 불공정 약관 - 고발건수 - 구제건수 - 허위광고
			경쟁자	- 불공정거래행위
			협력업자	- 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	영업보고서 적정성
분식결산		- 분식회계 지수		
결산분식 적발		- 분식결산 적발 건수		
2차 기업외부		환경법 위반	- 환경법규정 위반 및 오염적발건수	
		뇌물	- 뇌물적발건수	
		납세	- 탈세적발건수 - 납세액	
자발적 공헌지수	사회복지 기여도		- 기부 정도	
	환경보호		- 환경정책 - 환경회계 공시 - 국제인증환경시스템 - 환경정보 공개여부 - 환경운동 실시	

다음으로 1차 기업외부관련 항목은 소비자 항목, 경쟁자 항목, 협력업자 항목, 자본 시장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또한 2차 기업외부항목으로는 환경법규정 위반 및 오염적발 건수, 뇌물적발건수,

또 납세와 관련하여 탈세적발 건수 및 납세액을 평가하고 있다.

(3) 자발적 공헌지수(6개)

자발적 공헌지수는 기부금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사회복지 기여도와 환경정책의 유무, 환경회계공시 및 기업환경보고서 발간여부, 국제인증환경시스템 유무, 환경관련정보의 대외적 공개여부, 환경사업의 지속적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환경보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산업자원부의 윤리경영평가는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에 대해 평가하는 맞춤형 지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중심의 평가지수는 특징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진다.

5.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산업정책연구원)

2006년 4월 13일,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용역을 받아 기업들이 스스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냈다. 이 지표는 국제 규범으로 널리 알려진 UN Global Compact, GRI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한국적인 지표들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SYSA: Self-test for Your Sustainability)는 각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를 통해서 기업 스스로의 지속가능경영의 현재 위치 및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지속가능경영의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산업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표와 국내 기업환경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지표를 개발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1차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지표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지금 현재 산업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본 지표는 1차 파일럿 테스트만 거친 자료이므로 향후 기업들의 지속적인 응답을 받아 보완될 예정에 있다. 또한 본 지표는 대기업의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중소기업용 지표와 업종별 지표를 개발할 예정에 있다.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는 총 9개 지속가능경영의 영역에 대한 종합질문 및 추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질문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기본단계를 파악하고 이후 추가질문을 통해서 기업의 현 위치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자가진단지표는 가치와 리더십(5문항), 지배구조(8문항), 윤리경영(12문항), 사회적 책임(종업원,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총 57문항), 환경(16문항), 종합성과(4문항) 등 9개 영역별 10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결과는 AA(지속가능경영 정착단계)에서부터 D(지속가능경영 인식부족단계)에 이르기까지 7등급으로 구분된다.

〈표 5〉 종합등급

종합 등급	
AA	지속가능경영 정착단계
A	지속가능경영 정착 초기단계
BB	지속가능경영 확산단계
B	지속가능경영 확산 초기단계
CC	지속가능경영 도입단계
C	지속가능경영 인식단계
D	지속가능경영 인식부족

여기에서 종합질문(General Questions)이란 각 영역의 단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말하며 추가질문(Additional Questions)이란 각 영역의 주요이슈에 대한 추가질문을 뜻한다. 또한 영역별 등급(Grade by Field)은 지속가능경영의 8개 영역 각각에 부여되는 단계를 말하며 종합등급(Composite Grade)은 8개 영역을 종합하여 부여되는 단계를 뜻한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는 가치와 리더십, 기업지배구조,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기업을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표의 경우 기업 자신이 설문에 응해 자신의 취약분야를 파악한다는 자가진단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기업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진다.

6. 경제정의지수(경제정의연구소)

KEJI(경제정의지수)는 경실련 경제정의기업상의 평가기준으로서 매년 거래소에 상장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기업에 시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상은 기업들이 법률과 행정적인 제도로서 요구받는 사회적 성과를 다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이행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기업내부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보다 많은 기업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측정 및 평가방법은 사회공동체적 성과를 반영하는 기업활동의 건전성 및 공정성, 사회봉사기여도, 환경보호만족도, 소비자보호기여도, 기업의 종업원만족도, 경제발전기여도 등 7개 부문 60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각 지표의 측정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당년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보편성 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몇 년간 누적자료도 참고로 하고, 고려사항들은 자료원천을 사용하는데 있어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 또는 자료부족일 경우에 우선 적용한다. 가중치의 총점은 1,000점으로 분석하고, 그 배점은 일차

적으로 검증된 자료들인 ‘자료원’에 대해 신뢰성, 즉 추정치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지 자료원천에 대한 확신의 정도와 중요성, 즉 평가목적에 얼마나 기여해 주는가의 정도,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에 충실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성, 마지막으로 차별화여부에 대한 일반성 등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분하고 있다.

1) KEJI 지수 평가항목

KEJI 지수에 사용되는 각 항목들은 다음의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 KEJI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건전성	주주구성, 투자지출, 자본조달의 건전성
공정성	공정성, 투명성, 협력관계
사회봉사	소외계층 보호, 사회복지 지원
소비자보호	소비자 권리보호, 품질, 광고
환경보호	환경개선노력, 환경개선결과, 위반 및 오염실적
종업원	산업재해, 인적자원투자, 임금/복지후생, 노사관계, 남녀고용평등
경제발전	연구개발노력, 경영성과 및 경제기여

건전성 항목에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KEJI 지수는 주주구성의 건전성과 투자지출의 건전성, 영업활동의 건전성, 자본조달의 건전성등을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공정성 항목에서는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 시장지배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내부거래, 언론사와 광고사 보유 현황과 같은 공정성과 불성실 공시, 내부자 거래,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같은 위반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투명성,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 업종 침해사례 여부와 이들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등을 평가하고 있다.

사회봉사항목에서는 장애인 고용, 고령자 고용, 여성채용 비율,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과 같은 사회복지와 기부금, 지역사회지원, 시민단체 지원과 같은 사회지원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항목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거래수준을 측정하는 기업예산과 조직, 품질, 가격, 광고, 계약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항목에서는 기업의 환경개선노력과 환경개선의 결과, 그리고 환경관련 법률위반 및 오염실적 등을 평가한다. 환경회계 공시유무를 평가하고, 에너지 절약마크, 에너지 자발적 협약 채택여부 등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환경관련 인증 및 수상여부를 평가한다. 종업원 관련 항목에서는 교육훈련비/종업원수를 이용한 1인당 교육훈련비와 (당교육훈련비/전교육훈련비)×100를 이용하여 교육훈련비 증가율을 평가한다. 또한 (인건비/부가가치)×100 식을 이용하여 임금보상체계를 평가하고 (복리후

생비/부가가치)×100 식을 이용하여 기업의 복지 후생관련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 항목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기여도로써 평가항목의 대표적인 지표는 투입부분인 “연구개발노력”과 “연구개발성과”, “고용창출” 및 “대외교역” 부분을 측정한다. 기술혁신은 사회적 성과와 관련해서 평가되는 것으로 순수사회적 성과를 고려할 때는 평가항목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연구개발 및 부가가치 등 고용창출의 일부 기업의 장기적 가치창출에 있어 반영되는 방향으로 평가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부문에서는 연구개발지출, 수익성, 성장성, 설비투자, 고용인력 증가율, 조세납부, 배당성향, 노동생산성 증가율, 수출비중 등의 평가항목들이 있다.

2) KEJI 지수에 의한 기업평가 결과

KEJI는 지난 14년간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논의와 그것을 평가하고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활용되었다. 그러한 노력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과 대부분의 건전한 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접근하여 왔다. 1회부터 13회까지 대상 및 규모별 수상기업들이 업종의 전체 기업수를 고려할 때 고르게 분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대상 & 규모별 수상기업의 업종별 분포

업종	기업수 (a)	수상기업(회차)		합계 (b)	업종별 비율 a/b
		대상	규모별		
조립금속/기계 장비/전기전자	170	삼성전자(2) 제일엔지니어링(4) 대덕전자(5) 대덕전자(9) 삼성SDI(12) 대덕GDS(13)	해태전자(1) 대덕전자(3) 제일엔지니어링(3) 흥창(5) 동양물산기업(7) 평화산업(7) 대덕산업(8)	13	7.6%
음식료 및 제약업	76	유한양행(7) 한미약품공업(8)	일양약품(1) 중외제약(4) 녹십자(5)	5	6.6%
화학업	85	태평양(11)	코오롱유화(1) 거평제철화학(6) 금호석유화학(8) 태경산업(8)	5	5.9%
1차금속 및 비금속광물	64	한국유리공업(1) 포항종합제철(3) 한일시멘트(6)	포항종합제철(4) 한국유리공업(9)	5	7.8%
섬유/종이/ 기타제조	81	퍼시스(10)	신월(6)	2	2.5%
전체	476	13	17	30	6.3%

* 업종별 기업수 및 수상기업의 업종에 따른 분류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함.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상기업의 업종별 비교를 보면 섬유/종이/기타제조 업종이 상대적으로 수상을 적게 하였으나, 다른 업종의 경우 5.9%~7.8%로 일정비율

범위 이내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립금속/기계장비/전기전자, 음식료 및 제약업, 1차금속 및 비금속광물 업종이 6.6~7.8% 내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화학업과 섬유/종이/기타제조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섬유/종이/기타제조 업종을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대상기업 모집단 대비 수상기업의 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EJI는 지난 14년간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논의와 그것을 평가하고 알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활용되었다. 그러한 노력들이 활발한 기업 활동과 대부분의 건전한 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접근하여 왔다.

경제정의연구소의 KEJI 지수를 이용한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는 14회에 걸쳐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비경제적 가치, 그리고 기업 내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균형잡힌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지난 14년간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정의기업상은 특정한 업종이나 규모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영역에서 수상기업을 선정하여 왔으며,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다른 평가모형이나 시상제도의 기준에 비교하여 다양한 평가지표와 완결적인 지표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벤치기업이나 금융권 업종 등에 대해 사회적 성과의 잣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함께 지속적인 지표 정교화 작업과 지표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실시해 나갈 것인가 등은 향후 개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기업지배구조의 평가모형

1. S&P의 지배구조 평가

기업이 의뢰하거나 또는 펀드매니저 등의 의뢰를 통하여 의뢰기관을 평가하며 평가 수수료를 받는 평가이다. 평가결과 공표 여부는 당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기업들을 주로 평가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은 국민은행과 KT&G가 평가를 받았다. 이 S&P의 지배구조 평가모형은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가방법은 공개 및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평가하며, 사전에 질문서를 해당 기업에 발송한다. 또한 경영자와 사외이사, 기타 임직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면담을 통해 평가정보를 수집하며 CGS(Corporate Governance Score)는 0에서 10점을 부여한다. 평가정보의 변동 시에는 CGS가 변동, 정지 또는 취소되어진다.

한 기업의 지배구조점수는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재무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평가를 나타낸다. S&P는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CGS를 설계하였다. CGS를 부여하는 방법은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1999)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기준 및 지침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CGS는 최고 10점에서 최저 1점이다. 당해 회사가 분석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그럴 용의가 없는 경우 0점이 부여된다. CGS는 4개부문의 점수를 종합하여 결정되며, 각 부문 역시 최고 10점, 최저 1점이 부여될 수 있다.

점수부여과정에서는 공개 또는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해당기업에게 사전에 질문서를 제시하고, S&P의 분석자들이 경영자, 사외이사, 기타 임직원들을 면담한다. 또 CGS는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변동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정지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 CGS를 결정하기 위한 4개의 부문과 그 하위부문 및 기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은 소유구조, 이해관계자 권리 및 이들과의 관계, 투명성 및 공시, 이사회 의 구조와 역할 등이다. 우선, 소유구조의 평가 시, 적절한 공개정보 유무와 상호주 보유, 경영진 지배 법인의 보유, 명의주주 등과 같이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내부주주에 의한 수액주주 가치 희석, 모회사의 존재, 고객 또는 공급자 관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해의 집중,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이사회 또는 경영진의 독립성 저해, 경영진 또는 내부주주의 회계능력 부족 등과 같은 소유 집중 및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둘째로 이해관계자 권리 및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주총 소집, 주주제안 등 관련 소수주주권, 모든 주주가 참여 가능한 절차, 주총 관련 정보 제공의 공평성, 충분성, 적시성과 같은 의결권 행사 및 주총 절차에 대해 평가하며, 주식 구조의 명확성, 동일 종류주식에 대한 동일한 권리 부여, 주총에서의 소수주주의 가치희석에 대한 보호, 이익배분에 있어서 모든 주주의 공정한 대우와 같은 주주의 권리에 대해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지배권에 대한 공정경쟁 보장,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경영진 및 소유 변동에 대해 개방적인 지의 여부와 같은 인수방어에 대해 평가한다. 여기에서의 인수방어는 현재의 소유구조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하고 악의적이거나 해로운 것인 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셋째로 투명성 및 공시의 경우는 분명하고 완전한 공시인지에 대한 공시의 질과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신속성 및 모든 주주와 증시투자자의 접근 가능성, 정관, 규정, 규칙 등의 명확성 및 접근 가능성, 웹사이트 운영, 자국어 및 영어 사용 여부와 같은 공시 시기와 접근 용이성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경영진과 회사성과로부터의 독립성, 명망있는 감사인과 같은 감사인 독립성과 위치에 대해 평가한다.

넷째로 이사회 의 구조와 역할에 있어서는 모든 주주의 이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사회 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사회 의 역할 및 효과성, 사외이사 의 역할과 독립성, 이사와 경영진 보수, 평가 및 경영자 승계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GMI(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의 지배구조평가

2002년 11월부터, 전세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설 평가기관인 GMI(Governance

Metrics International)가 기업지배구조의 공통된 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GMI는 S&P(Standard & Poor's)에 이어 범세계적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두 번째 기관으로써²⁾ 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유료로 기관투자자(뮤추얼펀드, 연금기금 등) 등에 제공한다. 기업, 법률회사, 회계법인, 보험회사, 규제당국 등도 연간 구독료 18,000\$만 내면 정기구독 할 수 있다.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관들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평가기관들이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GMI는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던 종전의 기업지배구조의 모습을 전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에게 각 기업의 이사회를 국내외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이사회와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2년에 걸쳐 국제적인 차원에서 개발되어지고 검증된 GMI지수는 1개의 기업당 600여 개의 자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수의 사용자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사회구조,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위험관리를 포함한 일련의 지표에 대하여 시장별, 지역별, 통화권별 혹은 산업부문별로 회사의 평가점수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MI는 개편정보를 근거로 상장회사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GMI는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청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해서 GMI는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GMI는 크게 두 가지의 평가 방법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첫째로, 무료(무의뢰)평가의 방법인 basic ratings을 실시하고 있다. 즉, 기업의 시장가치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시가총액식 산출방법인 S&P 500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료평가인 comprehensive ratings를 실시하며 공적기관, 증권거래소, 전문기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 및 연구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기준은 증권관련 법규, 거래소 상장요건, OECD, ICGN 등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원칙, 전문가들의 견해 등을 참고로 해서 총 600여 개의 평가문항을 만들어 예, 아니오 또는 미공개로만 대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당국 제출자료, 회사 웹사이트, 언론 보도자료, 기타 등의 모든 공개자료를 활용하고 특수기관, 예컨대 IRRC의 제공자료도 이용하여 평가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를 베이스화하여 평가문항에 따라 분석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체크한 후에 당해기업에 자료보고서를 송부하여 최종적으로 정확성을 재확인 한다. 자료의 이러한 조정단계를 거친 후에 점수평가 모형에 의거해서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점수는 1부터 10까지이며 평가기업들간의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2) GMI와 S&P는 전세계의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평가기관들이다. S&P는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평가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결과의 공표 여부는 고객의 결정에 따른다. 이에 비해 GMI의 평가는 기업의 의뢰여부와 상관없이 보다 많은 기업들을 평가한다.

평가 알고리즘은 자체 개발한 고유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구 템플레이트를 7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는 다시 하위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각 문항은 숫자 값을 가지며 투자자 이해에 따라 가중되어진다.

이 평가는 매 6개월마다 이루어지고 평가주기 전에는 매일 평가대상기업을 모니터링하고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점수 변경을 고려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GMI는 무료(무의뢰)평가인 Basic Ratings과 유료평가인 Comprehensive Ratings이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료(무의뢰) 평가(Basic Ratings)

metric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공개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하며 평가보고는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요약과 7개 분야에 대한 코멘터리를 포함하고 있다. 7개 분야에 대한 코멘터리는 다음과 같다.

- 이사회와 설명책임
- 재무공시 및 내부통제
- 주주의 권리
- 경영자 보상
- 지배권시장
- 소유 현황 및 잠재적 희석
- 평판 및 SRI(사회적 책임 중시 투자) 관련 문제

위에서의 각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점수를 부여하여 당해 기업이 어느 분야에 약점 또는 강점이 있는가를 알려주며,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구독자에게 경고를 하는 Red flag's alert service를 제공한다. 각 기업의 평가결과는 구독자에게만 제공되지만 GMI는 S&P 500기업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유료평가(Comprehensive Ratings)

유료평가는 기업의 의뢰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실행한다.

이 평가는 basic ratings 절차로부터 시작되고 공개되지 않은 회사 정책 및 자료 등을 검토하며 또한 소송 및 규제위반 기록도 검토한다. 그리고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해서 회사의 지배구조 철학 및 관행을 파악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어진 평가결과는 반드시 공표하며 단, 평가결과의 공표 전에 회사의 검토를 허용하도록 하되 최종문안은 GMI가 선택한다. 이에 대해 회사는 평가결과에 대한 자신의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3. CLSA(Credit Lyonnais Securities Asia)의 국제평가모형

이 모형은 2000년부터 네 차례 지배구조 평가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국가와 기업차원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나 기업은 조금씩 바뀌지만 평가항목이나 산출방식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평가모형에 있어서 평가항목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먼저 기업별 평가는 규율, 투명성 등 7개의 부문에 걸쳐 57개 항목의 질문으로 조사대상 기업들이 얼마나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한다. 각 질문은 증권분석가들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 아니오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표 8> CLSA 평가항목의 부문별 구성

부 문	비 중
- 규율: 9개 질문	15
- 투명성: 10개 질문	15
- 독립성: 8개 질문	15
- 책임추궁가능성(accountability): 8개 질문	15
- 책임성(responsibility): 6개 질문	15
- 공정성: 10개 질문	15
- 사회적 책임(social awareness): 6개 질문	10

단위: %

총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규율(Discipline) 항목에서는 좋은 기업지배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적으로 기술한 임무 선언문이 회사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회사의 주식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상위 경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질문한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명성(Transparency) 항목에서는 회계연도의 마감 4개월 내에 그들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지와 그들의 보고서들이 명료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또한 회계기준에 있어서 IGAAP 기준에 따르고 있는지와 시간을 엄수해서 시장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는 회사들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상위 경영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한가와 그들의 성과와 회사관련 공지 사항들이 있는 회사의 영문 웹사이트가 신속하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총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성(Independence) 항목에서는 최고경영자와 비 최고 관리자들이 독립적인지와 회사가 감사 위원회, 보상 위원회, 추천 위원회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또한 회사와 완전하게 관련이 없는 외부의 감사인이 있는지도 평가하고 있다.

총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임추궁가능성(Accountability) 항목에서는 회사

의 非 최고 관리자들이 분명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독립적인가와 이사회에 부가적인 신뢰를 제공해 주는 이사회의 외국 국적을 가진 임원이 독립적인 가를 평가한다. 또한 이사 전체가 참여하는 이사회가 분기별로 최소한 1번 이상 개최되는 지와 이사회 이전에 모든 이사들에게 회의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잘 이루어지는 지도 질문한다.

총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책임성(Responsibility) 항목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심각한 사업실패나 잘못된 범죄가 있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적절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한 정도에서의 그릇된 경영에 대해 최고경영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지도 묻는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정성(Fairness) 항목에서는 모든 주주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총회 이전에 총회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주주의 권한 행사 중의 하나인 특정 사안에 대한 투표 방식이 쉽게 접근 가능한 지 여부(예를 들면 대리투표)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총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책임(Social awareness) 항목에서는 회사가 미성년자 고용 금지에 대한 정책/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와 성(性), 인종, 종교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고용 정책을 명문화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또한 회사가 분명하게 환경에 대해 지각하고 있는지와 환경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제품들의 사용을 촉진하거나 오염을 줄이려는 단계를 수행하고 있거나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표 9> CLSA 국가별 평가의 항목

단 위: %

항 목	비 중
- 투명하고 포괄적인 규칙과 규제	10
- 실행을 위한 규칙과 규제	30
- 정치적, 규제적 환경	20
- 국제회계원칙의 채택	20
- 제도적 장치	20

또한 국가별 평가는 기업별 평가와 달리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관련된 여건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별 평가항목에 있어서 어떤 제도나 관행이 갖추어져 있는가(10%)보다 실제로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가(30%)하는 실행의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CLSA의 2001년 4월의 평가를 살펴보면, 총 25개 신흥시장의 49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기업의 평균점수는 49.1로서 25개 국가들 중에

서 8위를 차지하였고, 지배구조의 기업 수익성 및 주가상승률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아시아의 10개국 중 9개국에서 지배구조 점수 상위 25% 대기업들은 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배구조가 경영의 질을 반영하여 투자자들은 지배구조가 나쁜 주식과 시장을 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볼 때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가 하나의 투자기준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평가에서 한국과 브라질, 러시아의 경우 이전 평가결과에 비해 지배구조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 ISS(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의 평가모형

ISS는 2001년도 초에 최우수 기업지배수상기업으로 5개 기업을 선정 발표하였다. ISS는 기업지배분야에서 기업지배 서비스와 위임권 투표에 대한 세계적인 선도적 지지자로서, 올해의 수상기업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한 것이다.

수상한 5개 기업에 대해 살펴보면, 노키아는 북유럽 지역에서 뛰어난 지배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PKN 올랜은 폴란드 지역에서 재무적 정보 등의 공개가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는 꾸준한 구조조정을 통한 주주관리 강화로 수상하였다. 또한 미국의 타겟은 독립적인 이사회와 실현으로 생산성 향상 및 주가 상승에 기여하는 지배구조기능의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기업으로 수상하였고, 도쿄 일렉트론은 일본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미국형 지배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수기업으로 파악됨으로써 선정되었다.

수상기업 선정에 있어서, ISS 연구전문가들은 80개의 시장에서 2만개 기업을 연구 평가하여, 1차적으로 고객 확보와 기업지배 이해에 기초를 둔 핵심시장을 구별하여 인식하였다. 따라서 ISS는 그들의 개별적인 지배구조 업적과 일반적인 위상이 각 시장에서 지배구조 리더로서 인식된 5개 기업을 엄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ISS평가모형은 다수 고객 기업들의 지원 및 연구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심사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80개의 시장 군으로 분류하고 핵심시장을 선정하는 등 시장 중심적 평가를 하며, 재무적 정보 공개 수준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지배구조 체계, 전반적인 지배구조 기능의 효율성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ISS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철학으로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모형의 평가 목적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시장 내 타기업들에게 비교대상을 제공하는 데 있다.

다음의 <표 10>은 ISS의 평가모형에 대해 요약·설명하고 있다.

<표 10> ISS의 평가모형 요약

평가 대상	80개 시장에서 2만개 기업을 평가하여, 1차 선별기준으로 고객확보와 기업지배이해에 근거한 핵심시장에 있는 기업 중 5개 기업 선정	
평가 심사원	ISS 소속의 전문연구원 팀	
평가기준	정보공개수준	공시사이트의 다수 외국어 표기, 이해 용이성, 이사들의 보상에 대한 정보 공개여부 등
	기업투명성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심사, 투자자 집단에 제공 하는 서비스의 질 등
	일반적인 주주관리 (처우)	투자자와 회사간의 관계개선 노력, 동등한 투표권 선호, 주주의 관심사에 대한 주의, 주주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 등
	지배구조의 체계	이사회의 년차 베이스 선임,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도입, 이사회 규모의 크기 등
	지배기능의 전반적인 효율성 (생산성, 이익증가)	주가상승의 실현, 이사회 독립성, 사업경험, 다양성 등
국내선정기업	삼성전자	
국외선정기업	노키아, PKN 올랜, 타겟, 도쿄 일렉트론 등	

그러나 이 평가모형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비교해 볼 때, 주주의 기본권리와 주총에서의 권리 등 주주의 권리에 대한 분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기준이 미비함으로써 평가모형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 기준과 비교해볼 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평가기준이 결여됨으로써 한국기업의 종업원이나 채권자에 대한 권리나 보호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유로머니(Euro Money)誌의 평가모형

유로머니誌의 평가모형은 신흥시장지수내 US 달러기준 상위 650대 기업 중에서 120개 기업과 선진국 주식시장의 상장기업 중에서 임의적으로 20개 기업을 추출하여, 각 기업들의 CEO, CFO, IR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설문의 내용은 4개의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100점이다. 4가지 각 부문은 예, 아니오로 이루어진 몇 가지의 설문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문 항목들의 점수가 합산되어 부문의 소계가 되고, 각 부문 소계의 합은 100점 만점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설문 항목들의 점수도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문의 소계를 포함한 선진국 시장기업의 평가 점수와 신흥시장 기업의 평가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첫째로 소유구조의 투명성(20점)에 대해 평가한다. 이 항목에서 최대주주 그룹의 주식 소유정도와 상위 5대 주주의 주식 소유율, 5% 이상 주식의 취득/처분시 보고, 임명/추천으로 등록된 주주의 비율, 내부 거래의 공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재무구조의 투명성(30점)에 대해 평가한다. 이 항목에는 연차 재무제표의 4개월 내에 공표와 분기 보고서는 6주 내에 공표, 연결재무제표의 국제 회계기준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른 작성 여부, 감사위원회 설치, 3년간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에 의한 적정의견 등이 포함된다. 셋째, 이사회 구조와 운영(30점)에 대한 항목은 정기 이사회회의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 여부와 비집행이사의 이사회 50%이상 점유, 보상위원회 설치, 경영진과 이사들의 물리적 이해관계 기록, 주주와 애널리스트들의 이사회 회의록 세부사항 회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주주중시경영(20점)에 대한 항목으로는 주주총회 30일 전에 주주에게 통보 및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주주가 주주총회 7일 전에 수령, 대리투표나 우편 투표를 주주에게 허용, 신주 발행 결정의 주총 기간 중 주주전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기업에 대한 유로머니誌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1>와 같다.

<표 11>유로머니誌의 평가결과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재무구조의 투명성	이사회 구조와 운영	주주중시 경영	총점	순위*
주택은행	17.5	30.0	30.0	16.0	93.5	1
호텔 신라	20.0	18.5	25.5	20.0	84.0	9
현대자동차	12.5	23.0	23.0	12.0	70.5	48
굿모닝증권	15.0	11.5	30.0	12.0	68.5	56
삼보컴퓨터	20.0	11.5	4.5	20.0	56.0	79

* 신흥시장 기업군 내에서의 순위를 나타냄.

선진국시장 기업군 중 영국의 브리티시 텔레콤이 93.0점(17.5 + 30.0 + 25.5 + 20.0)으로 1위를 기록하였으나, 주택은행의 점수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위를 기록한 오스트리아의 PBK의 점수는 50.0점(12.5 + 14.0 + 11.5 + 12.0)이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삼보컴퓨터보다 낮았다. 따라서 두 개의 기업군에서 주택은행이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고, 주택은행을 포함한 5개의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 선진국기업군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 평가모형은 세계적인 금융전문잡지로서 회계나 소유권과 같은 재무 및 소

유구조의 투명성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설문이 예와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제출되는 국가별, 기업별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응답자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평가 기준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비교하여 보면 주주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으므로써, 평가모형의 완전성에 미흡함이 엿보인다. 특히 주주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분야는 소액주주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호로써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효율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평가로서 국제적인 경제환경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의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종업원이나 채권자 등에 관한 평가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의 지배구조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orporate Matrics Internationals)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실태에 관한 평가모형을 운영하고 있다. 즉,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실태를 평가하여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방법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도출된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자료를 사용한다. 2004년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된 설문에 응한 상장법인 407사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와 관련된 분석을 위해서 2003년과 2004년에 모두 응답한 292사를 표본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12>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평가모형 부문의 점수

	부 문	점 수	비 고
1차 평가기준	- 주주의 권리보호(25개 질문)	90점	양적기준 (선택식)
	- 이사회	100점	
	- 이사회외의 구성과 사외이사(11개 질문)	40점	
	- 이사회 운영, 평가 및 보상(19개 질문)	60점	
	- 경영투명성(18개 질문)	50점	
	- 감사기구(9개 질문)	45점	
	- 경영의 과실배분(4개 질문)	15점	
2차 평가기준	- 주주의 권리보호(6개 질문)	20점	질적기준 (기술식)
	- 이사회(10개 질문)	24점	
	- 경영투명성(2개 질문)	6점	
	- 감사기구(5개 질문)	10점	

지배구조 평가항목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는데, 주주의 권리보호(90점), 이사회 구성 및 운영(100점), 공시(50점), 감사기구(45점), 그리고 경영의 과실배분(15점) 등이 그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원센터의 평가모형은 1차와 2차 평가기준으로 분류된다. 1차 평가기준은 양적인 기준이며 선택적인데 비해, 2차 평가기준은 질적 기준으로 기술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평가기준에 의한 총점은 300점이고 2차 평가기준에 의한 총점은 60점이며, 이들을 합쳐 360점으로 되어 있다.

1) 기업지배구조 평가기준 개정내용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3차에 걸친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05년 상장기업의 지배구조평가에 이용될 지배구조평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개정방향은 전체적인 체계의 유지, 지배구조센터의 직접조사 항목 비율 제고, 평가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국내 지배구조관련 개정 법률과의 조화 및 국제기준의 수용 등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문항 수는 128문항으로 기존 평가기준에 비하여 7문항 증가했고, 총점은 동일하나 부문별 문항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되었다.

먼저 주주의 권리부문은 배점의 변동 없이 일부 문항의 신설 또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사회 부문은 기업답변 항목이 가장 많았던 부분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센터 직접조사 항목으로의 조정이 이루어져 문항 수가 5개 감소하고 배점도 10점 감소되었다. 공시(경영투명성)부문은 평가문항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배점도 10점 증가되었는데, 이는 “comply or explain 원칙” 도입여건의 단계적 조성을 위하여 공정공시 관련 항목들을 강화하고, 증권선물거래소가 2003년 11월부터 실시한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공표체제 구축방안을 반영한 결과이다. 감사기구부문은 배점이 5점 증가되었고, 경영과실배분 부문은 배점이 5점 감소되었다.

<표 13> 주요 개정내용

구분	문항수			배점		
	개정전	현행	증감	개정전	현행	증감
주주의 권리보호	35	34	-1	90	90	0
이사회	40	35	-5	100	90	-10
공시	24	38	+14	50	60	+10
감사기구	17	18	+1	45	50	+5
경영과실배분	5	3	-2	15	10	-5
합계	121	128	+7	300	300	0

한편, 우수기업 등 선정 제외 사유 중 일부를 감점사항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되었으며 동 평가결과에 따라 지배구조센터에서 기업별로 부여하는 지배구조등급이 당해 기업의 지배구조현황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러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센터의 지배구조 실태조사 및 모범기업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지배구조의 좋고 나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되어야지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에 의해 인위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든가 특정 지배구조 관련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이 좋은 지배구조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등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개별제도의 채택여부 내지 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지배구조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것 이외에 기업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해당기업의 투자자는 물론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지배구조 평가 개요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센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에 설문조사 및 센터 내부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각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 최우수기업(3사)과 우수기업(7사), 개선기업(2사)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평가기준은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의 과실배분이며 평가절차는 우선, 사업보고서, DART 등 공시자료를 지원센터에서 전 상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다음단계로 on-line상에서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 다음 전 상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선정 대상 법인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고, 증빙자료를 징구하거나 기사검색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검증단계를 거쳐 평가를 완료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된 평가결과들은 지배구조 최우수기업, 우수기업, 개선기업을 선정하는데 이용된다. 시상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부과금이나 상장수수료 등을 감면해주고 국내외 IR에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우대조치가 뒤따른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는 매년 7월 1일, 증권거래소가 주체가 되어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지수 대상종목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또한 2004년부터는 최우량부터 매우취약에 이르기까지 총 8단계로 분류된 지배구조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지배구조 등급을 공표하는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중요성에 대한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장, 등록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노력을 통하여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배구조 위험이 낮은 기업을 쉽게 파악하여 투자대상 기업의 선택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결과들은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거나 지배구조 펀드 구성에 활용되어진다.

기업지배구조 등급별 명칭 및 해석은 다음의 <표 14>에 나타나 있다.

<표 14> 기업지배구조 등급별 명칭 및 해석

등급명	의미
최우량(Excellent)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부문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제시한 체계를 갖추고 그에 부합한 운영관행을 보임
우량+(Very Strong)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관행이 매우 우량하며 지배구조의 전 분야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얻음
우량(Strong)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우량한 기업으로 지배구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
양호+(Very Good)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매우 양호하나 한두 분야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획득함
양호(Good)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양호하나 지배구조의 일부 분야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획득함
보통(Moderate)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보통인 기업으로 지배구조의 일부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취약(Weak)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취약하며 지배구조의 각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기업임
매우취약(Very Weak)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매우 취약하며 지배구조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업임

2004년과 2005년 기간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 평가에 있어서 최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보통과 취약 등급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제4장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수들과 기업지배구조관련 평가모형들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지수들과 평가모형들에 있어서 평가기준이나 평가방식, 그 유용성 등은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지수들과 평가모형들의 평가 결과들은 평가대상 기업들과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집단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의 강도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일례로 특정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정도에 대한 평가결과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자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충성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이 활동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인식 변화에 의해 해당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거나 악화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지수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영방식에 변화가 생겨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영방식에 변화에 따른 조직의 형태, 기업문화 등의 변화도 예상되어 진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지수들과 기업지배구조관련 평가모형들의 고찰을 통해 각각의 지수들과 평가모형들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유사한 지수들과 평가모형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도 이러한 평가지수들과 모형들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을 펼치게 함으로써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집단 모두가 이익이 되는 상황이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김현수(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 동향”, CEO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 김해룡, 김나민, 유광희, 이문규(200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척도 개발”, 『마케팅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마케팅학회.
- 신명재(2005), “사회적 책임 표준 제정 동향”, 해외동향정보, 산업자원부.
- 이기훈, 최선, 차근호(200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사회성과 평가”, 『경상논총』, 제32집, 한독경상학회.
- 이상민, 최인철(2002),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삼성경제연구소.
- 정기웅(2004),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경상논총』, 제30집, 한독경상학회.
- 조동성, 김주태(2003), “기업지배구조 연구의 한계와 전망”, 2003년도 한국전략경영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발표 논문.
- 한은경(200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지수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7권 제3호, 한국방송학회.
- Jean B. McGuire, Alison Sundgren and Thomas Schneeweis(198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1, No.4, pp.854-872.

경제정의기업상 역대 수상기업

< *대표이사명은 수상당시 명임>

▶제1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전체 1위) 및 대형규모부문: 한국유리공업(주) 최태섭 대표이사 사장
2. 중형규모부문: 수상기업 없음
3. 소형규모부문: 해태전자(주)

▶제2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전체 1위) 및 대형규모부문: 삼성전자(주)
2. 중형규모부문: 일양약품(주)
3. 소형규모부문: 코오롱유화(주)

▶제3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전체 1위) 및 대형규모부문: 포항종합제철(주) 정명식 대표이사 회장
2. 중형규모부문: 대덕전자(주) 김정식 대표이사 사장
3. 소형규모부문: (주)제일엔지니어링 윤청목 대표이사 사장
4. 음식료품: OB맥주(주)
5. 섬유·의복 및 피혁: (주)대농
6. 종이·제지·나무목재: 한솔제지(주)
7. 화학업종: 한양화학(주)
8. 제약업종: (주)대웅제약
9.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한국컴퓨터
10. 전기전자·통신기기: 삼성전관(주)
11. 자동차 정밀·기타제조업: (주)기아정기

▶제4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전체 1위), 소형·전기전자: (주)제일엔지니어링 윤청목 대표이사
2. 대형/1차금속·비금속: 포항종합제철(주)
3. 중형, 제약업: (주)중외제약
4. 음식료품: 보해양조(주)
5. 섬유·의복: (주)선경인더스트리

6. 종이·제지: 쌍용제지(주)
7. 화학업: (주)LG화학
8. 조립금속·기계장비: 대우중공업(주)
9. 자동차·운송장비: 기아자동차(주)
10. 기타제조업: 영창악기제조(주)
11. 건설업: (주)기산

▶제5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중형규모(156사) 및 전기전자업종 최우수: **대덕전자(주)** - 대표이사 김정식
2. 대형규모(168사) 및 제약업종 최우수기업: (주)녹십자 - 대표이사 허영섭
4. 소형규모(137사): 흥창(주) - 대표이사 손정수
5. 섬유·의복 및 피혁제품 제조업: (주)신원 - 대표이사 고두모
6. 종이·제지 및 출판·인쇄 제조업 : 수상기업 없음
7. 화학 제조업: 이수화학(주) - 대표이사 김찬욱
8. 1차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조업: 한일시멘트(주) - 대표이사 허동섭
9.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 동양기전(주) - 대표이사 엄기화
10. 시계·정밀 및 기타제조업: 오리엔트(주) - 대표이사 강춘근

▶제6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대형규모 및 1차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조업: **한일시멘트(주)** - 대표이사 허동섭
2. 중형규모 및 화학제조업: (주)포스코켄→(주)거평제철화학 - 대표이사 염태섭
3. 소형규모 및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주)신원 - 대표이사 박성철
4. 음식료품 제조업: (주)풀무원 - 대표이사 남승우
5. 종이·제지 및 출판·인쇄 제조업: 한국수출포장공업(주) - 대표이사 하용삼
6. 제약제조업: (주)유한양행 - 대표이사 김선진
7.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 (주)삼보컴퓨터 - 대표이사 이홍순
8. 전기·전자 제조업: 수상기업없음
9. 자동차·시계정밀 및 기타제조업: (주)오리엔트
10. 건설업: 수상기업 없음

제7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및 제약 제조업: (주)유한양행 - 대표이사 김선진
2. 중형규모 및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 동양물산기업(주) - 대표이사 김희용
3. 소형규모: 평화산업(주) - 대표이사 조치호
4. 음식료품 제조업: (주)서흥캡셀 - 대표이사 양주환
5. 섬유·의복: (주)신원 - 대표이사 박성철
6. 종이·제지 출판 제조업: 웅진출판(주) - 대표이사 백석기

7. 화학 제조업: (주)태평양 - 대표이사 서경배
8. 1차금속·비금속광물 제조업: 고려제강(주) - 대표이사 홍영철
9. 전기전자 제조업: LG전자(주) - 대표이사 구자홍
10. 시계정밀 등 기타제조업: (주)퍼시스

▶제8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및 제약업종: **한미약품공업(주)** - 임성기 대표이사 회장
2. 대형규모: 금호석유화학(주) - 박찬구 대표이사 사장
3. 중형규모 및 전기전자업종: 대덕산업(주) - 유영훈 대표이사 사장
4. 소형규모: 태경산업(주) - 김영환 대표이사 회장
5. 음식료품 제조업종: (주)삼양제넥스 - 박종현 대표이사 사장
6. 섬유 의복 제조업종: 수상기업 없음
7. 종이제지 제조업종: (주)대한펄프 - 최병민 대표이사 사장
8. 화학업종: (주)태평양 - 서경배 대표이사 사장
9. 1차금속·비금속광물 제조업: 동양시멘트(주) - 노영인 대표이사 사장
10. 조립금속·기계장비 제조업종: 대경기계기술(주) - 김석기 대표이사 회장
11. 자동차·기타제조업종: 삼성라디에터공업(주) - 고희곤 대표이사 사장

▶제9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중형, 전기전자업종: **대덕전자(주)** - 김성기 대표이사 사장
2. 대형규모 및 1차금속·비금속광물업종: 한국유리공업(주) - 김성만 대표이사 사장
3. 소형규모: 수상기업없음
4. 음식료품 제조업종: (주)남양유업 - 홍원식 대표이사 사장
5. 섬유 의복 제조업종: (주)삼양사 - 김 윤 대표이사 사장
6. 종이제지출판 제조업종: 한솔제지(주) - 차동천 대표이사 사장
7. 화학업종: (주)이수화학 - 윤신박 대표이사 사장
8. 제약업종: 동화약품공업(주) - 황규언 대표이사 사장
9. 조립금속 기계장비업: (주)경동보일러 - 김철병 대표이사 회장
10. 자동차·기타제조업종: 평화산업(주) - 김종석 대표이사 부회장

▶제10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및 자동차·기타제조업: (주)퍼시스
2. 음식료업종: 동원 F&B(주)
3. 섬유 의복업종: (주)BYC - 한석범 대표이사
4. 종이제지출판- (주)웅진닷컴
5. 화학업: (주)태평양 - 서경배 대표이사
6. 제약업: 환인제약(주) - 김금림 대표이사 사장

7. 1차금속 및 비금속광물: 포스코 - 이구택 대표이사
8.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계양전기(주) - 이상익 대표이사 사장
9. 전기전자: 삼화전자공업(주)

▶제11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부문: (주)태평양 - 서경배 대표이사 사장
2. 음식료 업종: 롯데칠성음료(주) - 김부곤 대표이사 사장
3. 섬유종이기타제조업종: (주)비비안 - 윤재성 대표이사 사장
4. 화학업종: 한국셀석유(주) - 김동수 대표이사 사장
5. 제약업종: (주)대웅제약 - 윤재승 대표이사 사장
6. 1차금속 및 비금속광물업종: 수상기업 없음
7. 전기전자업종: 미래산업(주) - 장대훈 대표이사 사장
8. 특별추천부문상: 안철수연구소 - 안철수 대표이사 사장

▶제12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부문: 삼성SDI(주) - 김순택 대표이사 사장
2. 음식료 업종: 남양유업(주) - 홍원식 대표이사 사장
3. 섬유/종이/기타제조 업종: (주)비와이씨(BYC) - 한석범 대표이사 사장
4. 제약 업종: 유한양행(주) - 김선진 대표이사 사장
5. 1차금속 및 비금속 광물 업종: 한일시멘트(주) - 정환진 대표이사 사장
6.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업종: 계양전기(주) - 이상익 대표이사 사장
7. 추천부문특별상: (주)신세계 - 구학서 대표이사 사장

▶제13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부문: 대덕GDS(주) - 유영훈 대표이사
2. 음식료 및 제약업종: 롯데칠성음료(주) - 이종원 대표이사
3. 섬유/종이/기타제조 업종: (주)퍼시스 - 양영일 대표이사
4. 화학업종: 한국셀석유(주) - 김동수 대표이사
5. 1차금속 및 비금속광물업종: (주)포스코 - 이구택 대표이사
6. 조립금속/기계장비/전기전자업종: 삼성전자(주) - 윤종용 대표이사
7. 추천부문특별상: (주)케이티 - 이용경 대표이사

▶제14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 주식회사 포스코 - 이구택 대표이사 회장

2. 식약/섬유/종이업 : CJ 주식회사 - 김주형 대표이사 사장
3. 금속/비금속/화학업 :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 정환진 대표이사 사장
4. 전기전자/기계업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유관홍 대표이사 사장
5. 비제조/서비스업 : 주식회사 케이티 - 이용경 대표이사 사장

▶제15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

1. 대상 : 수상기업 없음
2. 식약/섬유/종이업 : (주)LG생명과학 - 양흥준 대표이사 사장
3. 금속/비금속/화학업 : (주)LG화학 - 노기호 대표이사 사장
4. 전기전자/기계업 : 기아자동차(주) - 김익환 대표이사 사장
5. 비제조/서비스업 : 수상기업 없음

제16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 자료집

2006년 12월 16일 인 쇄
2006년 12월 18일 발 행

발 행 인 : 정 재 영
편 집 총 관 : 곽 수 근
편 집 진 행 : 박 완 기
서희경 · 권오인 · 유현석 연구원

발 행 처 : (사)경제정의연구소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전화 / 766-5625(직), 765-6400(대표)
팩스 / 741-8565

인 쇄 처 : 서린기획 전화 / 2263-2704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하며, 전재를 할 경우
반드시 자료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